독파민

정답과 해설

중학 국어

어휘1

문학 개념 어휘

01 운문 ①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018쪽

1 (1) 상징 (2) 비유, 원관념, 보조 관념, 원관념, 보조 관념
2 (1) 상징 (2) 활유법, 의인법
3 ③
4 예시 문장 호기심이 많아서 여기저기 참견하기 좋아하는 내 성격은 통통 튀는 개구쟁이 고양이에 비유할 수 있다.

3 밑줄 친 부분에서는 '별'이 사람처럼 '속삭인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사람이 아닌 '별'을 사람의 동작이나 감정을 가진 것처럼 표현하였으므로 의인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노트
❶ 은유법은 표현하려는 대상과 비슷한 속성이 있는 다른 대상을 활용하여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❷ 직유법은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지닌 두 사물을 '같이', '처럼', '듯이'와 같은 연결어를 사용해 표현하는 방법이다.
❹ 활유법은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다.
❺ 대유법은 사물의 일부분이나 특징을 통해 그 자체나 전체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4 '비유'는 표현하려는 대상을 그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2회 본문 021쪽

1 (1) ㉡ (2) ㉠ (3) ㉢
2 (1) 시적 상황 (2) 시적 대상 (3) 이면적 화자
3 (1) 어조 (2) 시적 화자
4 ②

2 (3) '표면적 화자'는 이면적 화자와 달리 시 속에서 '나', '우리'와 같은 화자 자신을 지칭하는 시어가 겉으로 직접 드러난다.

4 제시된 글에서 시인은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 조롱과 야유를 보내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이나 현실을 쌀쌀한 태도로 업신여기며 비웃는 것'을 의미하는 '냉소적'이 알맞다.

오답 노트
❶ '염세적'은 세상을 싫어하고 모든 일을 어둡고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❸ '낙관적'은 인생이나 사물을 밝고 희망적인 것으로 보며 앞으로의 일이 잘되어 갈 것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❹ '희망적'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❺ '비관적'은 인생을 어둡게만 보아 슬퍼하거나 절망스럽게 여기며 앞으로의 일이 잘 안될 것이라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

02 운문 ②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024쪽

1 (1) × (2) × (3) ○
2 (1) 음악성 (2) 형상성 (3) 함축성
3 (1) 공감각적 심상 (2) 시각적, 촉각적
4 ②

1 (1) 공감각적 심상은 한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겨가서 표현되는 심상이다.
(2) 함축성은 어떤 말이 사전적·지시적 의미 외에 다양한 뜻을 갖는 것을 말한다.

3 (1) '바람결에 흘러내리는 파란 종소리'는 청각적 대상인 '종소리'를 시각적 색채인 '파란'으로 전이되어 표현되는 청각의 시각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공감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2) 눈으로 보는 '하얀 달빛'은 시각적 심상에 해당하고, 피부로 느끼는 '시리다'는 촉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4 '코끝을 스치는 맵싸한 매운탕 냄새'는 코를 통해 느끼는 자극이므로 미각적 심상이 아니라 후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2회 본문 027쪽

1 (1) 염세적 (2) 비판적 (3) 예찬적
2 (1) ㉢ (2) ㉠ (3) ㉡
3 ④
4 예시 문장 나는 일기를 쓰며 나 자신을 성찰적인 태도로 돌아본다.

3 선생님이 말하는 화자는 자연을 벗 삼아 살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서로 뜻이 맞거나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친화적'이 자연과 가깝게 지내려는 화자의 태도를 설명하는 데 알맞다.

오답 노트
❶ '도피적'은 어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맞서지 않고 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❷ '비판적'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❸ '초월적'은 어떠한 한계나 표준, 이해나 자연 따위를 뛰어넘거나 경험과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❺ '비평적'은 사물의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따위를 분석하여 가치를 논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성찰적'은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살피는 것을 의미한다.

03 산문 ❶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030쪽

1 (1) 전형적 (2) 개성적 (3) 주동, 반동
2 (1) ○ (2) × (3) ×
3 ①
4 (예시 문장) 「토끼전」의 토끼는 별주부에게 속아 용궁에 가지만,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라는 꾀를 내어 위기를 극복한다.

1 (1) 개화기 신여성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대표하는 옷차림이므로 '전형적'이 알맞다.
(2) 기존과 다른 성격을 지닌 역할이므로 '개성적'에 해당한다.
(3) 사건을 이끌어 가는 인물은 주동 인물, 그에 맞서는 인물은 반동 인물에 해당한다.

2 (2) 주인공에 맞서 대립하며 주제의 방향과 반대되는 인물은 주변 인물이 아니라 반동 인물이다.
(3) 인물 간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면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발한다. 또한 독자가 인물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제시의 장점이다.

3 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철수는 성격이 급하다"처럼 직접 제시하지 않고, 발을 동동 구르거나 손수건을 구기는 등의 행동 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으므로 '간접 제시'에 해당한다.

오답 노트

❷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태도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설명하는 방법이다.
❸ '설명적 제시'는 '직접 제시'와 같이 서술자가 인물의 특성을 직접 설명하는 방법이다.
❹ '분석적 제시'는 인물의 성격이나 행동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설명해 주는 방법이다.
❺ '추상적 제시'는 인물의 상태나 성격을 구체적인 정황이나 행동 없이 관념적이고 막연하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4 '중심인물'은 사건을 이끌어 가는 주인공으로 「토끼전」의 토끼, 「흥부전」의 흥부, 「홍길동전」의 홍길동이 이에 해당한다.

2회

본문 033쪽

1 (1) ㉢ (2) ㉡ (3) ㉠
2 (1) ○ (2) × (3) ○
3 (1) 가치관 (2) 외적 갈등 (3) 내적 갈등
4 ②

2 (2) 운명에 의하여 이미 정해진 것을 인물이 거부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은 내적 갈등이 아니라 인물과 운명 사이의 갈등으로 외적 갈등에 해당한다.

3 (2) 인물과 인물, 혹은 인물과 사회처럼 인물의 외부 환경과 대립하며 겪는 갈등은 외적 갈등에 해당한다.
(3) 잘못된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괴로움처럼 인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내적 갈등에 해당한다.

4 제시된 글에서 '문기'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양심을 따르는 정직한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미성숙했던 인물이 갈등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성숙한 존재로 거듭나므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성장'이 알맞다.

오답 노트

❶ '갈등'은 인물 사이에 일어나는 대립과 충돌 또는 인물과 환경 사이의 대립을 이르는 말이다.
❸ '이념'은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를 말한다.
❹ '저항'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굽히지 아니하고 거역하거나 버티는 것을 말한다.
❺ '가치관'은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의 사상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 태도를 말한다.

04 산문 ❷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036쪽

1 (1) ㉢ (2) ㉠ (3) ㉡
2 (1) 사회적 (2) 자연적 (3) 심리적
3 (1) 세계관 (2) 제재
4 ②

3 (1)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태도나 방식을 가리키는 맥락이므로 '세계관'이 알맞다.
(2) '소나기'는 작가가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 선택한 중심 재료이므로 '제재'가 알맞다.

더 알아두기 **소설 「소나기」 속 '소나기'의 역할**

사건의 전환점	산에서 소나기를 만나 수숫단 속에서 함께 비를 피하며 소년과 소녀가 가까워짐.
비극의 계기	소나기를 맞아 소녀의 병세가 악화되고 비극적 결말로 이어짐.
사랑의 속성	세차게 쏟아졌다 곧 그치는 소나기처럼 짧고 순수하게 끝난 사랑을 상징함.

4 신분 제도가 엄격했던 조선 사회에서 「홍길동전」은 적서 차별 제도를 문제 삼고 있는 소설이다. 허균이 이러한 소설을 창작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사회적 문제인 적서 차별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문제점을 찾아서 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태도'를 의미하는 '문제의식'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오답노트

❶ '사리사욕'은 개인의 이익과 욕심을 의미하므로, 사회적 문제를 비판하는 맥락과 어울리지 않는다.

❸ '윤리 의식'은 도덕적 기준이나 규범을 지키려는 의식으로, 사회의 부조리를 파헤치고 비판하는 태도와 관련이 적다.

❹ '적서 차별'은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제도로, 허균이 지닌 비판적 생각이나 태도를 뜻하는 단어로 쓰이기에 알맞지 않다.

❺ '유교적 인간관'은 유교 사상에 바탕을 둔 인간에 대한 관점으로, 당대 보편적 가치관에 해당하므로 다른 문인들과 구분되는 특징으로 보기 어렵다.

더 알아두기 「홍길동전」의 사회적 배경과 허균의 관점

「홍길동전」의 배경인 조선은 개인의 역량보다 신분이 우선하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다. 특히 같은 양반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본처의 자식을 적자, 양인인 첩의 자식을 서자, 천인인 첩의 자식을 얼자로 구분하여 차별하였다.

작품 속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출중한 재능이 있음에도 과거 응시조차 가로막혔던 것은 이러한 시대적 제약 때문이었다. 작가 허균은 이처럼 능력보다 신분을 중시하는 당대 사회의 모순을 포착하고, '홍길동'이라는 인물을 통해 신분제 사회의 불합리함을 날카롭게 비판하고자 했다.

3 제시된 글에서 설명하는 문학 양식은 사물을 의인화하여 그 일대기를 전기 형식으로 서술하는 가전체이다. 가전체는 설화와는 달리 작자의 독창성과 허구성이 발휘된 개인 창작물로, 소설 문학에 한 단계 접근하여 설화와 소설을 이어 주는 교량 역할을 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오답노트

❶ 설화는 각 민족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 오는 신화, 전설, 민담 등을 통틀어 말한다.

❸ 민속극은 민간에 전하여 내려오는 극 양식을 말한다.

❹ 신소설은 갑오개혁 이전부터 현대 소설이 창작되기 전까지 이루어진 소설로, 봉건 질서의 타파, 개화, 계몽 등을 주제로 주로 다룬다.

❺ 패관 문학은 민간에서 수집한 이야기에 작자의 창의성을 더한 산문 문학을 말한다.

4 전설(傳說)은 장소, 인물, 신앙 등 구체적인 증거물과 연결되어 진실하다고 믿어지는 이야기를 말한다.

2회

본문 039쪽

1 (1) 신성한 (2) 구비
2 (1) 고전 소설 (2) 근원 (3) 설화
3 ②
4 예시 문장 옛날 옛적 우리 마을 고개에서 호랑이가 벼락을 맞아 굳어 버렸다는 '호랑이 바위' 이야기가 전해진다.

1 (1) 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은 거룩하고 고결하다는 뜻의 '신성한' 공간이 알맞다.

(2) 이야기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맥락이므로, 말로 전하여 내려온다는 뜻의 '구비'가 알맞다.

2 (2) 도미 아내 이야기는 「춘향전」의 뿌리가 된 설화이므로 사물의 바탕이나 원천을 뜻하는 '근원'이 알맞다.

더 알아두기 '도미 설화'와 「춘향전」의 공통점

'도미 설화'는 백제 개루왕의 위협에 맞서 절개를 지킨 도미 아내의 이야기로, 「춘향전」의 바탕이 된 근원 설화이다.

'도미 설화'	공통점	「춘향전」
개루왕	권력자의 횡포	변학도
도미의 아내	지조를 지키는 여성	성춘향
여종을 대신 보냄.	위기 극복과 시련	수청을 거부하고 옥에 갇힘.
남편 도미와 재회함.	극적인 재회	암행어사가 되어 나타난 이몽룡과 재회함.

05 극과 교술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042쪽

1 (1) 발단 (2) 대단원 (3) 절정
2 무대 장치
3 ③
4 예시 문장 우리 연극 동아리가 축제 기간 동안 강당에서 연극을 상연하기로 했다.

2 조명이나 배경처럼 연극을 하기 위해 무대에 꾸며 놓은 여러 가지 시설이나 도구를 '무대 장치'라고 한다.

3 '연출하다'는 각본을 바탕으로 무대, 조명, 연기 등을 종합적으로 짜임새 있게 '꾸며 내거나 표현하다'라는 뜻이다.

오답노트

❶ '관람하다'는 연극이나 영화, 전시 등을 본다는 뜻으로, 무대나 효과를 만드는 행위와는 거리가 멀다.

❷ '상영하다'는 영화를 극장 등의 화면에 띄워 보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❹ '모방하다'는 다른 대상을 흉내 내거나 본뜨는 것을 의미하므로, 무대를 의도에 맞게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❺ '생략하다'는 일부를 줄이거나 빠뜨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무대 효과를 표현하는 의도와는 거리가 있다.

4 '상연'은 '연극 따위를 무대에서 하여 관객에게 보이는 일'을 의미한다.

2회

본문 045쪽

1 (1) ○ (2) × (3) ×
2 (1) ㉡ (2) ㉢ (3) ㉠
3 (1) 깨달음 (2) 교훈 (3) 성찰
4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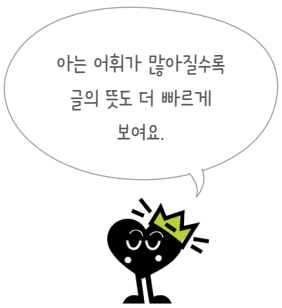
1 (2) 사회적인 문제를 소재로 다루며 무겁고 딱딱한 느낌을 주는 수필은 경수필이 아니라 중수필이다.
(3) '통찰'은 사물을 꿰뚫어 보는 것이고 '성찰'은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는 것이므로 두 단어의 의미는 서로 다르다.

3 (1) 부처가 오랜 수행과 명상을 통해 이치나 진리를 알게 된 내용이므로 '깨달음'이 알맞다.
(2) 소유욕을 버려야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삶의 지혜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므로 '교훈'이 알맞다. '가훈'은 한 집안의 정해진 가르침이나 도덕적 지침을 뜻한다.
(3)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지난날의 나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것이므로 '성찰'이 알맞다. '감찰(監察)'은 단체나 기관에서 일이나 행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단속하는 것을 뜻한다.

4 이 글은 글쓴이가 일상 주변에서 일어난 경험을 바탕으로 봄을 맞이하면서 느낀 감정과 생각을 진솔하게 적은 수필로,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글의 소재로 삼고 있어 신변잡기적 특징이 잘 드러난다.

오답 노트

❶ '비평적'은 대상이나 현상의 가치, 옳고 그름을 논리적으로 평가하고 따지는 성격으로, 일상의 경험과 감상을 솔직하게 적은 글의 특징과는 거리가 멀다.
❷ '전문적'은 특정 학문이나 기술 분야의 깊이 있는 지식을 다루는 성격이므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적 경험을 적은 글의 특징으로 맞지 않다.
❸ '논리적'은 이치에 맞게 주장을 펼치거나 논거를 들어 설득하는 성격이므로, 주관적 느낌과 감상을 전달하는 글의 특징에 맞지 않다.
❹ '객관적'은 글쓴이의 개인적 감정이나 주관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전달하는 성격이므로, 글쓴이의 주관적 감상과 정서가 드러난 글의 특징으로 맞지 않다.



종합 문제 01~05

본문 046~049쪽

01 ③ **02** ② **03** ⑤ **04** ④
05 상징 **06** 후각적 심상 **07** 공감각적 심상
08 주제 **09** ② **10** 세계관 **11** 문제의식
12 직접 제시 **13** 입체적, 개성적 수능형 ①
14 ㉠: 신화, ㉡: 전설, ㉢: 민담 **15** ⑤
16 ② **17** ③ **18** 경수필 **19** 중수필
20 ③

01 '어조'는 시에서 화자의 목소리가 지니는 특징을 말한다.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그려지는 감각적인 느낌'은 '심상'이다.

02 표현하려는 대상을 그와 비슷한 특성을 지닌 다른 대상에 빗대어 나타내는 방법을 비유라고 한다.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등은 모두 비유에 속하는 표현 방법이다.

오답 노트

❶ 상징은 어떤 추상적인 사상이나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다.
❸ 심상은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각적인 이미지나 느낌을 의미한다.
❹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특성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방법이다.
❺ 간접 제시는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 등을 통해 인물의 특성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03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의인법이라고 한다. '봄바람'이 '속삭인다'라고 표현하여 바람이 사람의 행동을 하는 것처럼 나타냈으므로 의인법에 해당한다.

오답 노트

❶ ⓑ는 사람이 아닌 봄바람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다.
❷ '~같이', '~처럼'과 같은 연결어를 사용하는 표현 방법은 직유법에 해당한다.
❸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은 활유법에 해당한다.
❹ 'A는 B이다' 또는 'A의 B'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은유법의 구조이다.

04 '이면적 화자'는 작품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화자로(ㄹ), 시 속에 '나',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작품 뒤에 숨어 서술하는(ㄴ) 특징을 지닌다.

05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구체적 사물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을 '상징'이라고 한다.

06 냄새를 코로 맡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심상을 후각적 심상이라고 한다. '빵 굽는 냄새'는 코로 맡는 감각을 떠올리게 하므로 후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07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겨져 나타나는 심상을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한다. 귀로 듣는 '종소리'를 '동그란'이라는 모양으로 표현하여 청각을 시각화하였으므로 공감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08 '주제'는 작가가 글이나 작품을 통해 독자에게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으로, 주제를 정확히 찾아내야 작품의 진정한 의미나 작가의 의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09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태도를 '관조적'이라고 한다. 화자가 강물과 구름을 차분히 바라보며 삶의 이치를 비추어 보고 있으므로 관조적 태도가 알맞다.

오답노트

❶ 냉소적 태도는 대상을 쌀쌀맞은 태도로 비웃듯 바라보는 것으로, 고요하고 차분하게 삶의 이치를 살펴본다는 글의 맥락과 어울리지 않는다.

❸ 도피적 태도는 현실의 어려움이나 문제로부터 벗어나 도망치려는 태도이므로, 자연을 바라보며 진리를 비추어 보는 내용과 거리가 멀다.

❹ 염세적 태도는 세상이나 인생을 싫어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이거나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이므로, 글의 차분한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

❺ 비판적 태도는 대상의 잘못이나 흠을 따져 밝히거나 평가하려는 태도이므로, 고요한 마음으로 이치를 담담히 살펴본다는 태도와 거리가 멀다.

10 작품 속에 반영된 세상에 대한 작가의 관점은 '세계관'으로, 작가가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이나 인간의 삶에 대해 가지는 태도나 가치관을 말한다.

11 작가가 현실의 모순을 날카롭게 포착하여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문제의식'으로, 사회의 부조리나 부정적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갖는 것을 말한다.

12 (나)에서는 '이기적인 행동을 일삼는 인물'과 같이 서술자가 민수에 대한 판단을 직접 전달하고 있는데, 이처럼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독자에게 직접 요약하여 설명해 주는 방식을 '직접 제시'라고 한다.

13 사건 전개에 따라 성격이 변하는 인물은 '입체적 인물', 개인의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인물은 '개성적 인물'이다.

수능형 소설 속에서 사건을 이끌어 가며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을 중심인물이라고 한다. 김유정의 「봄봄」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인 '나'가 곧 사건의 주인공으로서 이야기를 주도하기 때문에 중심인물에 해당한다.

오답노트

❷ 주변 인물은 주인공의 곁에서 사건 전개를 돕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❸ 반동 인물은 주동 인물(주인공)과 대립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이다.

❹ 전형적 인물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보편적인 성격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❺ 평면적 인물은 작품 속 사건이 전개되는 동안 성격이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인물로, 사건 중심에서 이야기를 서술하는 역할에 대한 인물의 유형으로 알맞지 않다.

14 신성성을 지닌 탄생 이야기는 신화, 구체적 증거물이 있어 진실성이 강조되는 것은 전설, 구체적 증거물이 없고 민간에 전하여 내려오는 이야기는 민담이다.

15 ⓐ는 인물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고, ⓑ는 인물과 외부 요인(타인, 사회, 운명 등)과의 대립으로 발생하는 갈등이다.

16 사물을 의인화하여 그 일대기를 전기 형식으로 서술하는 소설은 가전체이고, 설화를 바탕으로 조선 시대에 창작되어 권선징악을 주로 다룬 옛 소설은 고전 소설이다.

오답노트

패관 문학은 민간에 떠도는 소문이나 이야기를 관리가 수집하여 기록한 문학 양식이고, 신소설은 개화기에 들어서 나타난 소설이다.

17 '통찰'은 사물을 꿰뚫어 보는 것, '깨달음'은 생각하여 알게 되는 것으로 의미가 서로 비슷한 유의 관계이다. 나머지는 모두 반의 관계이다.

오답노트

❶ '예찬'은 대상을 높이 평가하고 칭송함을, '비판'은 대상의 잘못이나 결점을 따져 꼬집음을 의미하므로 서로 반의 관계이다.

❷ '염세적'은 세상을 어둡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낙천적'은 세상일을 긍정적이고 좋게 보는 것을 의미하므로 서로 반의 관계이다.

❹ '친화'는 서로 사이좋게 어울리는 것을, '불화'는 서로 뜻이 맞지 않아 갈등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서로 반의 관계이다.

❺ '신성하다'는 거룩하고 고결하다는 것을, '비천하다'는 지위나 성품이 낮고 천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서로 반의 관계이다.

18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을 소재로 글쓴이의 주관적인 감정과 정서를 솔직하게 표현한 일기나 편지 등을 경수필이라고 한다.

19 사회적 문제와 같은 무거운 내용을 소재로 글쓴이의 논리적인 생각과 비평이 중심이 되는 글을 중수필이라고 한다.

20 인물과 배경이 제시되고 사건의 실마리가 드러나는 단계는 발단이다. 대단원은 갈등이 해결되고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되는 마지막 단계이다.



알면 든든 우리말 표현

확인 문제

본문 052~053쪽

01 유언비어 **02** 교언영색 **03** 호언장담 **04** 언어도단
05 언중유골 **06** 청산유수 **07** 구밀복검 **08** 발
09 한마디 **10**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11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01~06

호	제	말	청	적	응	백
언	아	이	산	교	시	세
장	부	미	유	언	비	어
담	정	불	수	영	소	문
언	어	도	단	색	건	장
낭	설	난	언	중	유	골

07 '구밀복검(口蜜腹劍)'은 '입에는 꿀을, 배 속에는 칼을 품었다'는 뜻으로, 겉으론 친절하나 속으론 해칠 마음을 먹은 이중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한자 성어이다. 당나라 간신 이임보가 겉으로 상대를 치켜세우며 뒤에선 음모를 꾸며 제거한 고사에서 유래했으며,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사람을 경계할 때 사용한다.

10 제시된 대화에서 예지와 정국이는 먹을 것을 두고 말을 주고받다가 급기야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어울린다.

11



제시된 만화와 같이 어떤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마침 그 사람이 나타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이다.

문학 주제별 어휘

06 자연과 계절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058쪽

1 (1) × (2) ○ (3) ○
2 (1) 진눈깨비 (2) 여우비 (3) 눈보라 (4) 산마루
3 (1) 재, 내 (2) 우레
4 ③

1 (1) 산이나 처마 따위에서 비탈진 곳의 아랫부분은 '기슭'이라고 한다. '녹음'은 '푸른 잎이 우거진 나무나 수풀. 또는 그 나무의 그늘'을 말한다.

2 (1) '푸슬푸슬'은 눈이나 비가 조용히 성기게 내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이다. 따라서 비가 섞여 내리고 음산한 날씨가 이어졌다는 맥락이므로, '비가 섞여 내리는 눈'을 뜻하는 '진눈깨비'가 알맞다.
(2) 비가 내린 뒤 개울가의 풀과 물빛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맥락이므로, '볕이 드는 날 잠깐 내리는 비'를 뜻하는 '여우비'가 알맞다.
(3) 세찬 바람에 몸이 얼어붙기 시작했다는 맥락이므로, '바람에 날리어 몰아치는 눈'을 뜻하는 '눈보라'가 알맞다.
(4) 친구들과 함께 넘어 즐거웠다는 맥락이므로, '산등성이의 가장 높은 곳'을 뜻하는 '산마루'가 알맞다.

더 알아두기 음성 상징어

의성어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예 쿵쿵, 멍멍, 땡땡, 우당탕 등
의태어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 예 아장아장, 엉금엉금, 번쩍번쩍 등

3 (1) '재'는 '길이 도통하여 넘어 다니게 된 높은 산의 고개'를 의미하므로, 산의 고개는 '넘는' 대상이며 '험하다'는 표현과 어울린다. 반면 '내'는 시냇물을 의미하므로, 물이 흐르는 공간은 '건너는' 대상이며 수심이 '깊다'는 표현과 어울린다.
(2) 국어 표준어 규정 제26항에 따라 '우레'와 '천둥'만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표준어 표기인 '우레'가 알맞다.

4 ㉠~㉢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문맥적 의미를 고려할 때 '마을', '동네', '골목'과 관련되는 공간이어야 하므로, '드나드는 목의 첫머리'를 의미하는 '어귀'가 가장 알맞다.

오답노트
❶ '재'는 길이 나 있어서 넘어 다닐 수 있는 높은 산의 고개를 의미하므로, 문맥상 알맞지 않다.
❷ '기슭'은 산이나 처마 따위에서 비탈진 곳의 아랫부분을 의미하므로, 문맥상 알맞지 않다.
❹, ❺ '산척'이나 '산마루'는 산등성이의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하므로, 문맥상 알맞지 않다.

2회

본문 061쪽

1 (1) 설렜다 (2) 하염없이 (3) 움텄다
2 (1) 한창 (2) 쓸쓸해 (3) 역겨움
3 ③
4 예시 문장 어릴 적 살던 동네를 오랜만에 찾았더니, 골목길 구석구석에 묻어 있는 옛 추억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1 (1) '소풍을 가기 전날 밤'이라는 기대감 넘치는 상황에서 잠을 이루지 못 할 정도로 마음이 두근거리는 상태를 나타내는 '설레다'가 알맞다.
(2)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며' 끊임없이 창밖을 응시하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시선이 드러나므로, 시름에 차서 끝없이 계속되는 모양을 나타내는 '하염없이'가 알맞다.
(3)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적 배경과 '새싹이 파릇파릇하게' 피어나는 상황에 주목할 때, 봄을 맞아 메말랐던 나뭇가지에 새 생명이 돋아나는 현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움트다'가 알맞다.

더 알아두기 '자연'과 관련된 어휘

만발(滿發)하다	① 꽃이 활짝 다 피다. ② 추측이나 웃음 따위가 한꺼번에 많이 일어나다. 예 집 안에는 웃음꽃이 만발하였다.
흐드러지다	① 매우 탐스럽거나 한창 성하다. ② 매우 흐뭇하거나 푸지다. 예 흐드러진 웃음소리
울창(鬱蒼)하다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지고 푸르다.
무르익다	① 과일이나 곡식 따위가 충분히 익다. ② 시기나 일이 충분히 성숙되다. 예 여름이 한창 무르익고 있었다.

2 (1) '한창'은 '어떤 일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나 때'를 의미하고, '한참'은 '시간이 상당하게 떨어져 있는 동안'을 의미한다. 고랭지 농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임을 나타내는 '한창'이 알맞다.
(2) '쓸쓸해'는 '외롭고 적적해'라는 의미이고, '씁쓸해'는 '조금 쓴', '달갑지 아니하여 조금 싫거나 언짢은'이라는 의미이다. 한겨울 추위에 말라버린 고목을 나타낼 때는 '쓸쓸해'가 알맞다.
(3) '역겨움'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불쾌하고 싫음'이라는 의미이고, '지겨움'은 '싫증이 나서 신물이 남'이라는 의미이다.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고 했으므로 '역겨움'이 알맞다.

3 〈보기〉의 '상기(上氣)해서'는 '흥분이나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붉어져서'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③이다.

오답노트
❶ 제시된 문장에서 '상기(相忌)하는'은 '서로 꺼리는'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❷ 제시된 문장에서 '상기(上記)한'은 '어떤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본문 위나 앞쪽에 적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❹, ❺ 제시된 문장에서 각각 '상기(想起)하며'와 '상기(想起)했다'는 모두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여 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4 '아련하다'는 '똑똑히 분간하기 힘들게 어렴풋하다'는 의미이다.

07 사랑과 시련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064쪽

1 (1) 연분 (2) 시름 (3) 한
2 (1) 무심한 (2) 여의고 (3) 요절
3 ②
4 예시 문장 차가 꽉 막힌 시끄러운 도시 한가운데에 서서, 나는 넓은 들판과 밤하늘에 별이 가득하던 평화로운 시골집 앞마당을 그리곤 했다.

1 (1) '결혼'이라는 계기로 이어지는 맥락이므로 부부나 연인의 인연을 의미하는 '연분'이 알맞다.
(2) '직장을 잃고'라는 힘든 상황과 뒤이어 나오는 '위로의 말을 건넸다'라는 맥락을 살필 때, 마음의 근심을 나타내는 '시름'이 알맞다.
(3) '이북에 두고 온 가족을 잊지 못하시고' 눈을 감으셨다는 안타까운 상황에 주목할 때, 평생 풀지 못한 억울함이나 마음 깊이 맺힌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데 쓰이는 '한'이 알맞다.

2 (1) '무심한'은 '아무런 생각이나 감정이 없는'이라는 의미이고, '무고한'은 '아무런 사고나 탈이 없는'이라는 의미이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한가로이 떠다니는 구름의 성질을 표현할 때는 '무심한'이 알맞다.
(2) '여의고'는 '부모나 자식, 배우자와 이별하거나 작별하고'라는 의미이고, '여위고'는 '몸이 마르고'라는 뜻이다. 부모를 잃고 '고아로 자라서'라는 맥락이므로 '여의고'가 알맞다.
(3) '요절'은 '젊은 나이에 죽음'을 의미하고, '자멸'은 '제 허물로 스스로 망함'을 의미한다. '서른이 채 되기 전에'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맥락이므로 '요절'이 알맞다.

3 '백년하청(百年河淸)'은 '중국의 황허강이 늘 흐려 맑을 때가 없다'는 의미로, 아무리 오랜 시일이 지나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혼례를 할 때 신부의 어머니에게 신랑이 하는 약속의 말로는 알맞지 않다.

오답노트
❶ '해로(偕老)'는 '부부가 함께 늙어 감'을 의미하므로, 평생을 함께 살겠다는 굳은 약속을 표현하는 맥락에 알맞다.
❸ '백년동락(百年同樂)'은 '남녀가 부부가 되어 한평생을 함께 즐겁게 지냄'을 의미하므로, 신부와 화목하게 지내겠다는 문맥에 알맞다.
❹ '백년해락(百年偕樂)'은 '부부가 되어 한평생을 함께 늙으며 즐겁게 지냄'을 의미하므로, 전통 혼례의 서약 내용에 알맞다.
❺ '백년해로(百年偕老)'는 '부부가 되어 한평생을 사이좋게 지내고 함께 늙음'을 의미하므로, 문맥에 알맞다.

더 알아두기 전통 혼례 속 '나무 기러기'의 의미

기러기는 한 번 짝을 맺으면 평생을 함께하고, 한쪽이 죽어도 다른 짝을 찾지 않는 성질이 있다. 신랑이 신부의 어머니에게 기러기를 전달하는 것은 '평생 신부만을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겠다'는 굳은 약속을 의미한다.

4 '그리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생각하다'는 의미이다.

2회

본문 067쪽

1 (1) 수심 (2) 풍상 (3) 절개
2 (1) 우국 (2) 세한고절
3 (1) 굳건한 (2) 의연함 (3) 고비
4 ⑤

2 (1) '실제로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느냐?'에 주목할 때, '나랏일을 걱정함'을 의미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우국'이 알맞다.
(2) '겨울에도 푸른 대나무의 정신', '절개의 상징'이라는 표현을 살펴볼 때, 추운 한겨울에도 굽히지 않는 높고 푸른 절개를 의미하는 '세한고절'이 알맞다.

3 (1) '굳건한'은 '의지가 매우 굳고 튼튼한'이라는 의미이고, '곤궁한'은 '가난하고 궁핍한'이라는 의미이다. 군인의 신념을 표현할 때는 '굳건한'이 알맞다.
(2) '의연함'은 '의지가 강하고 대범하여 웬만한 시련에 흔들리지 않음'이라는 의미이고, '연연함'은 '집착하여 미련을 둠'이라는 의미이다.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대범함을 유지했다는 맥락이므로 '의연함'이 알맞다.
(3) '고비'는 '일이 아주 급하고 위태로운 순간'을 의미하고, '시비'는 '옳고 그름'을 의미한다. 뒤에 '목숨을 부지했다'는 문장이 이어지므로, 죽을 뻔한 위기의 순간을 의미하는 '고비'가 알맞다.

4 조선 시대의 사대부는 관직을 떠나 자연 속에 머물거나 유배를 떠나게 되었어도 '충(忠)'을 중시하는 유교적 세계관을 지녔기 때문에,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임금에 대한 충성과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시가들을 창작하였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임금을 그리워함'을 의미하는 '연군(戀君)'이 알맞다.

오답노트
❶ '군신(君臣)'은 '임금과 신하'를 의미하므로 문맥상 알맞지 않다.
❷ '절개(節槪)'는 '신념, 신의 따위를 굽히지 아니하고 굳게 지키는 꼿꼿한 태도'를 의미하므로 문맥상 알맞지 않다.
❸ '충의(忠義)'는 '충성과 절의를 아울러 이르는 말'을 의미하므로 문맥상 알맞지 않다.
❹ '우국(憂國)'은 '나랏일을 근심하고 염려함'을 의미하므로 문맥상 알맞지 않다.

더 알아두기 조선 시대 사대부 시가의 주제와 상징적 시어

• 사대부 시가의 핵심 주제

연군지정(戀君之情)	신하로서 임금을 그리워하고 변함없는 충성을 다짐하는 마음.
우국지정(憂國之情)	나라의 앞날과 나랏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

•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대표적 자연물

매화(梅)	추운 이른 봄눈 속에서도 제일 먼저 꽃을 피워 맑은 향기를 퍼뜨리는 선비의 기상을 상징함.
난초(蘭)	깊은 산속에서 은은한 향기를 발산하며 도도한 품격을 지키는 모습을 상징함.
대나무(竹), 소나무(松)	한겨울의 모진 추위 속에서도 잎이 시들지 않고 항상 푸르름을 유지하여 변하지 않는 충성심과 지조를 상징함.

08 삶과 고난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070쪽

1 (1) ○ (2) × (3) ○
2 (1) 한결같이 (2) 등한시 (3) 악착같이
3 (1) 경이롭다 (2) 동반자 (3) 망연자실
4 ④

1 (2) '일가견'은 '어떤 일에 관하여 일정한 경지에 오른 안목이나 견해'를 의미한다.

2 (1) '한결같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라는 의미이고, '귀신같이'는 '생각이나 행동이 매우 묘하고 영통하게'라는 의미이다. 늘 변함없이 느릿느릿하다는 의미로 뒤의 '굼벵이들'을 수식해야 하므로 '한결같이'가 알맞다.
(2) '등한시(等閑視)하다'는 '소홀하게 여겨 신경을 쓰지 않다'라는 의미이고, '멸시(蔑視)하다'는 '업신여기거나 깎아내려 낮추어 보다'라는 의미이다.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소홀히 했다는 문맥이므로 '등한시'가 알맞다.
(3) '악착같이'는 '어떤 일을 굳게 마음먹고 매우 끈기 있게'라는 의미이고, '돈을 모으다'처럼 목표를 향해 모질게 노력하는 행동을 나타낼 때 어울린다. 반면 '철석같이'는 '마음이나 약속이 매우 굳고 튼튼하게'라는 의미로 주로 '믿다', '약속하다' 등과 어울린다. 따라서 돈을 모으는 태도를 표현할 때는 '악착같이'가 알맞다.

4 바다 한가운데에 떠서 보았을 때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은 '한없이 크고 넓은 바다'를 의미하는 '망망대해'이다.

오답노트
❶ '인생'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나 '사람이 살아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말로 문맥상 알맞지 않다.
❷ '방과'는 '그대로 지나침'을 의미하는 말로 문맥상 알맞지 않다.
❸ '등한시'는 '소홀하게 보아 넘김'을 의미하는 말로 문맥상 알맞지 않다.
❺ '망연자실'은 '황당한 일을 당하거나 어찌할 줄을 몰라 정신이 나간 듯이 멍함'을 의미하는 말로 문맥상 알맞지 않다.

2회

본문 073쪽

1 (1) 애간장 (2) 고혈
2 (1) × (2) × (3) ○
3 (1) 침잠하기 (2) 속절없는 (3) 혹사하고
4 (예시 문장) 거친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고 마침내 꿈을 이룬 주인공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었다.

1 (1) '애간장'은 '애(창자)와 간장(간과 창자)'을 의미하는 말로, '몹시 타들어 가는 슬픔이나 안타까움'을 비유할 때 쓰인다. 따라서 관용적 표현인 '애간장을 끓어오르게 만들다(끓이게 만들다)'와 어울려, 듣는 이의 마음을 지극히 슬프고 안타깝게 만든

다는 의미를 지닌다. '역경'은 '일이 순조롭지 않아 맞닥뜨리는 어려운 처지나 환경'을 의미한다.
(2) '고혈(膏血)'은 '기름과 피'라는 의미로, 백성들이 땀 흘려 얻은 소중한 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고초'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의미한다.

2 (1) '횡액'은 '뜻밖에 닥쳐오는 불행'을 의미한다.
(2) 근심과 재앙을 통틀어 이르는 말은 '환란'이다. '불화'는 서로 화합하지 못하거나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3 (1) 마음을 한곳에 모으거나 깊은 감정·분위기 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나타내는 '침잠하다'가 문맥에 알맞다.
(2) 어찌할 도리가 없거나 아무런 보람이나 소용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속절없다'가 문맥에 알맞다.
(3) 사람이나 동물을 지나치게 혹독하게 일을 시키는 행동을 의미하는 '혹사하다'가 문맥에 알맞다.

4 '풍파'는 세찬 바람과 험한 물결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심한 분쟁이나 분란, 세상살이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의미한다.

09 인물의 관계와 특징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076쪽

1 (1) ○ (2) ×
2 (1) 슬하 (2) 앙갚음 (3) 데릴사위
3 (1) 장인 (2) 마름
4 (1) ㉢ 보은 (2) ㉠ 역성 (3) ㉡ 대거리

1 (2) '우호적'은 개인끼리나 나라끼리 서로 사이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2 (1) '슬하(膝下)'는 '무릎 아래'라는 의미로, '어버이나 조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범위'를 이르는 말이다. 반면 '수하(手下)'는 '부하'를 의미한다. 홀어머니의 보살핌 아래에서 자랐다는 문맥이므로 '슬하'가 알맞다.
(2) '앙갚음'은 '남이 저에게 준 해를 되돌려줌'을 의미하고, '두둔'은 '편을 들어 보살펴 주거나 편들어 줌'을 의미한다. 문신들에게 받아 온 수모에 대해 칼을 갈며 복수할 날을 기다렸다는 문맥이므로 '앙갚음'이 알맞다.
(3) '데릴사위'는 '처가로 들어와서 사는 사위'를 의미하고, '민며느리'는 '장차 며느리로 삼으려고 어릴 때 데려다 키우는 여자아이'를 의미한다. '남자가 처가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사는' 제도에 대한 설명이므로 '데릴사위'가 알맞다.

4 (1) '보은(報恩)'은 '입은 은혜를 갚음'을 의미한다. '부러진 제비 다리를 고쳐 주고' 제비로부터 그 은혜에 대한 대가로 받은 박을 통해 보물을 얻는 이야기이므로,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의 '보은'이 ㉢의 문맥에 알맞다.
(2) '역성'은 '잘못이 있든 없든 한쪽 편만을 들어 주는 일'을 의미한다. '하나뿐인 딸의 편만 들다 보니' 결국 '딸의 버릇이 너무 없어졌다'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문맥이므로, 무조건적인 편들기를 의미하는 '역성'이 ㉠의 문맥에 알맞다.
(3) '대거리'는 상대편에게 맞서서 대드는 것을 의미한다. '평소 사이가 안 좋은 옆집 할머니'와 티격태격 맞서 다투었다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맞대응하여 다투는 행동을 나타내는 '대거리'가 ㉡의 문맥에 알맞다.

2회 본문 079쪽

1 (1) 감개무량 (2) 신출귀몰 (3) 비분강개
2 (1) 사무치게 (2) 서슬 (3) 고심
3 ④
4 (예시 문장)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홀로 남아 가련해진 주인공은 원수를 갚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몹시 원통했다.

1 (1)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감동이나 느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깊고 크다는 의미를 지닌 '감개무량'이 문맥에 알맞다.
(2) 귀신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등 그 자유롭고 신통하여 행적을 예측할 수 없는 모습을 나타내는 '신출귀몰'이 문맥에 알맞다.
(3) 부당하거나 참담한 현실에 대해 슬퍼하고 분하게 여기며 마음이 북받쳐 오르는 상태를 의미하는 '비분강개'가 문맥에 알맞다.

2 (1) '사무치게'는 '깊은 감정이나 상태가 뼈저리게 가슴속 깊이 들어앉게'라는 의미이고, '사모하게'는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사랑하게'라는 의미이다. '그리웠다'에 어울리는 표현으로는 '사무치게'가 알맞다.
(2) '서슬'은 '강하고 날카로운 기세'를 의미하고, '사슬'은 '쇠로 만든 고리를 여러 개 죽 이어서 만든 줄'을 의미한다. 사람의 날카롭고 무서운 기세에 눌렸다는 문맥에 쓰일 때는 '서슬'이 알맞다.
(3) '고심(苦心)'은 '마음을 다 태우며 모질게 애를 씀'을 의미하고, '진심(眞心)'은 '거짓 없는 참된 마음'을 의미한다. 유학을 갈지 말지 '몇 년 동안' 깊이 생각하고 고민했다는 맥락이므로 '고심'이 알맞다.

3 '고귀한'은 '신분이나 지위가 높고 귀한' 또는 '훌륭하고 가치가 높은'을 의미하므로 '지위나 신분이 낮고 천한'을 의미하는 '비천한'과 바꿔 쓰기에 알맞지 않다.

오답노트
❶ '신성한'은 '성스럽고 거룩한'을 의미하는 말로, 훌륭하고 가치가 높은 '고귀한'과 의미가 통하여 바꿔 쓰기에 알맞다.
❷ '고결한'은 '성품이나 인격이 높고 깨끗한'을 의미하는 말로, 신분이나 가치가 높은 '고귀한'과 유사한 의미이므로 바꿔 쓰기에 알맞다.

❸ '존엄한'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나 가치가 높고 엄숙한'을 의미하는 말로, 귀하고 훌륭함을 나타내는 '고귀한'과 바꿔 쓰기에 알맞다.
❺ '숭고한'은 '행동이 고상하고 인격이 높은'을 의미하는 말로, 가치가 높고 훌륭한 '고귀한'과 의미가 유사하므로 바꿔 쓰기에 알맞다.

4 '원통하다'는 '분하고 억울하다'는 의미이고, '가련하다'는 '슬픈 마음이 들 정도로 가엾고 불쌍하다'는 의미이다.

10 인물의 마음과 행동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082쪽

1 (1) × (2) ○ (3) × (4) ○
2 (1) 무료하게 (2) 화끈댔다 (3) 미심쩍은
3 (1) 간악한 (2) 파렴치한
4 ①

1 (1) '고깝다'는 섭섭하고 야속하여 마음이 언짢다는 의미이다. 마음씨가 몹시 매섭고 독하다는 '모질다'의 의미이다.
(3) '허탈하다'는 몸에 기운이 빠지고 정신이 멍할 때 쓰는 말이다. 흥미 있는 일이 없어 심심하고 지루함을 느낄 때 쓰는 말은 '무료하다'이다.

2 (1) 특별한 일 없이 흥미가 없고 심심한 상태를 나타내는 '무료하다'를 '텔레비전만 봤다'라는 행동을 수식하는 '무료하게'로 활용하여 쓴다.
(2) 부끄럽거나 수줍어서 얼굴이 열을 받아 달아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화끈대다'를 교실에 뒤늦게 들어서서 모두의 시선을 한 번에 받는 민망한 과거의 상황을 나타내는 '화끈댔다'로 활용하여 쓴다.
(3) 확실하지 못하여 마음이 놓이지 않고 의심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미심쩍다'를 동생이 몰래 자신의 일기장을 본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생각'을 수식하는 '미심쩍은'으로 활용하여 쓴다.

3 (1) '간악한'은 '간사하고 악한'이라는 의미이고, '간략한'은 '간단하고 생략되어 짧은'이라는 의미이다. 침략 정책의 사악하고 악독한 성격을 지적하며 '낱낱이 파헤쳤다'라는 문맥이므로 '간악한'이 알맞다.
(2) '파렴치한'은 '염치가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이라는 의미로 앞의 '도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에 어울린다. 반면 '능글맞은'은 '태도가 흉측하고 간사스러운'이라는 의미이므로, 심각한 범죄 행위를 나타내는 문맥에는 '파렴치한'이 알맞다.

4 악한 사람을 가까이하면 반드시 그 화를 입게 된다는 의미의 속담으로는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가 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이다.

오답노트
❷ '무안한'은 '수줍거나 창피하여 볼 낯이 없는'을 의미한다.
❸ '민망한'은 '낯을 들고 대하기가 부끄러운'을 의미한다.
❹ '뻔뻔한'은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염치없이 태연한'을 의미한다.
❺ '꺼림칙한'은 '마음에 걸려서 언짢고 싫은 느낌이 있는'을 의미한다.

2회

본문 085쪽

1 (1) 정색 (2) 안간힘 (3) 자초지종
2 (1) × (2) ○ (3) ×
3 난데없이, 으름장
4 (예시 문장) 어머니는 약속 시간을 어긴 형에게는 힐난이 담긴 목소리로 꾸중하셨지만, 심부름을 잘 마친 동생에게는 따뜻한 칭찬을 해 주셨다.

1 (1) 장난기나 표정을 싹 바꾸어 엄격하고 바른 얼굴빛을 띠는 '정색'이 문맥에 알맞다.
(2)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매우 몹시 애를 쓰거나 분노나 아픔 따위를 참아 내려고 어떤 힘을 다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안간힘'이 문맥에 알맞다.
(3)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난 일의 모든 경과나 사정을 의미하는 '자초지종'이 문맥에 알맞다.

2 (1) '경망'은 '행동이나 말이 신중하고 조심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3) '고단하다'는 '몸이나 마음이 지쳐서 고달프다'는 의미로 몸이 지쳤을 때 사용하는 말이며, '피곤하다'와 바꿔 쓸 수 있다. 조용하고 쓸쓸한 상황을 나타낼 때는 '적적하다' 또는 '한적하다'를 사용한다. 또한, '비난하다'는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다'는 의미로, '고단하다'와 바꿔 쓸 수 없다.

3 첫 번째는 강아지가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르게 불쑥 나타났다는 맥락이므로, '갑자기'를 뜻하는 '난데없이'가 알맞다. '터무니없이'는 '허황하여 전혀 근거가 없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두 번째는 간식을 내놓지 않으면 물어버리겠다며 위협하는 맥락이므로, '말과 행동으로 위협하는 짓'을 뜻하는 '으름장'이 알맞으며, 주로 '으름장을 놓다'는 관용적 표현으로 쓰인다.

4 '힐난'은 '트집을 잡아 지나치게 많이 따지고 듦'을 의미한다.



종합 문제 06~10

본문 086~089쪽

01 ②	02 ⑤	03 ④	04 ⑤
05 망연자실	06 ④	07 ⑤	08 ②
09 진눈깨비	10 눈보라	11 여우비	12 우레
13 ①	14 ③	15 ⑤	16 ⑤
17 세한고절	수능형 ②	18 ⑤	
19 움튼, 아련하게		20 ②	

01 (가)의 '무심하여'는 '아무런 생각이나 감정이 없어'라는 의미이다. (가)에서는 사랑하는 이를 일찍 떠나보내게 하는 야속한 운명을 나타내므로 '냉정하고 야속하여'와 바꿔 쓸 수 있다.

02 '안간힘'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몹시 애쓰는 힘을 말한다. 세상살이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은 '풍파'이다.

03 ⓐ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생각하게 되는'이라는 의미로, 타향으로 떠난 자식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④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였다.

오답노트

❶, ❷ 연필이나 붓 따위로 선이나 색채를 사용하여 형상을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그리다'가 쓰였다.

❸ 현상이나 어떤 대상을 글로 묘사하거나 표현함을 의미하는 '그리다'가 쓰였다.

❺ 마음속에 어떤 형상이나 모습을 떠올리거나 구상함을 의미하는 '그리다'가 쓰였다.

04 '경망'은 행동이나 말이 가볍고 조심성이 없음을 의미하고, '신중'은 매우 조심스러움을 의미하므로 반의 관계이다. 나머지는 유의 관계이다.

오답노트

❶ '불화'는 서로 화목하지 못함을 의미하고, '분쟁'은 다투고 싸움을 의미하므로, 두 단어는 유의 관계이다.

❷ '폐단'은 어떤 일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을 의미하고, '악폐'는 나쁜 폐단을 의미하므로, 두 단어는 유의 관계이다.

❸ '수심'은 시름에 차 있는 마음을 의미하고, '근심'은 답답하고 걱정되는 마음을 의미하므로, 두 단어는 유의 관계이다.

❹ '풍파'는 세찬 바람과 험한 물결을 뜻하며 세상살이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의미하고, '풍상'은 바람과 서리를 뜻하며 많이 겪은 세상의 어려움과 고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두 단어는 유의 관계이다.

05 '망연자실(茫然自失)'은 정신을 잃은 듯 멍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다. 갑작스러운 일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을 나타낼 때 쓰인다.

06 '굳건하게'는 뜻이 굽힘이 없이 굳세고 건실하게'를 의미한다. '비굴하게'는 '용기나 줏대 없이 남에게 굽히기 쉽게'를 의미하므로 바꿔 쓰기에 알맞지 않다.

오답노트

❶ '굳세게'는 '뜻이나 의지가 강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게'라는 의미로, '굳건하게'와 바꿔 쓰기에 알맞다.

❷ '의연하게'는 '의지가 강하고 대범하여 시련에 흔들림 없이'라는 의미로, '굳건하게'와 바꿔 쓰기에 알맞다.

❸ '꿋꿋하게'는 '어떤 시련이나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굳세게'라는 의미로, '굳건하게'와 바꿔 쓰기에 알맞다.

❺ '강건하게'는 '몸이나 마음, 의지가 굳세고 건강하게'라는 의미로, '굳건하게'와 바꿔 쓰기에 알맞다.

07 '수작(酬酌)'은 술잔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의미와 남의 말이나 행동을 낮잡아 이르는 의미를 함께 지닌다. ⑤의 '수작'만 술잔을 서로 주고받음의 뜻으로 쓰였다.

08 '비분강개(悲憤慷慨)'는 슬프고 분하여 마음이 북받침을 의미한다. 나라를 잃은 슬픔과 분노가 격렬하게 터져 나오는 상황을 표현하는 데 알맞다.

오답노트

❶ '일가견'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독자적인 경지나 체계를 이룬 견해'를 의미한다. 제시된 문장의 슬픔이나 분노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❸ '시종일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함'을 의미한다. 특정 감정 상태나 분위기를 표현하지 않으므로 제시된 문장과는 관련이 없다.

❹ '경거망동'은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함'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 제시된 문장과는 관련이 없다.

❺ '감개무량'은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감동이나 느낌이 끝이 없음'을 의미한다. 슬픔이나 울분이 아닌 '감격'이나 '벅찬 감동'을 나타낼 때 쓰는 말로 제시된 문장과는 관련이 없다.

14 '적대적'은 상대를 적으로 대하거나 적과 같이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사이가 좋음을 의미하는 말은 '우호적'이다.

15 '대거리'는 상대편에게 맞서서 대드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한다. 지호와 준서가 오해로 말끝마다 맞부딪치는 상황을 나타내므로 '맞서서 서로 말다툼함'과 바꿔 쓸 수 있다.

16 '고혈(膏血)'은 본래 사람의 기름과 피를 의미하며, 몹시 고생하여 얻는 이익이나 재산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고혈을 짜다'는 가혹하게 착취함을 의미한다.

오답노트

❶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남'은 '요절'의 뜻풀이다.

❷ '뜻밖에 닥쳐오는 불행이나 액운'은 '횡액'의 뜻풀이다.

❸ '마음에 걸려 풀리지 않는 근심과 걱정'은 '시름'의 뜻풀이다.

❹ '일이 순조롭지 않아 매우 어렵게 된 처지'는 '역경'의 뜻풀이다.

더 알아두기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는 '고혈(膏血)'

「춘향전」 속 탐관오리의 착취

금준미주(金樽美酒) 천인혈(千人血)이요
옥반가효(玉盤佳肴) 만성고(萬姓膏)라

(현대어 풀이)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만 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 암행어사 이몽룡이 변학도의 잔치에서 탐관오리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자신의 사치를 채우는 모습을 비판한 대표적인 구절임.
- 대구와 은유를 활용하여 '술'을 '피'에, '안주'를 '기름'에 비유하며 지배층의 착취를 효과적으로 풍자함.

17 한겨울의 심한 추위 속에서도 굳건히 지키는 외로운 절개를 의미하는 한자 성어는 '세한고절(歲寒孤節)'이다.

> **수능형** 밑줄 친 내용을 표현하기에 알맞은 한자 성어는 '서릿발이 심한 추위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홀로 꼿꼿이 지키는 절개'라는 의미의 '오상고절(傲霜孤節)'이다.
>
> **오답노트**
> ❶ '낙목한천(落木寒天)'은 '나뭇잎이 다 떨어진 겨울의 춥고 쓸쓸한 풍경'을 의미한다. 단순히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며, 대나무나 절개와는 관련이 없다.
> ❸ '의기양양(意氣揚揚)'은 '뜻한 바를 이루어 만족한 마음이 얼굴에 나타난 모양'을 의미한다. 절개나 지조와는 관련이 없다.
> ❹ '추풍낙엽(秋風落葉)'은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이라는 의미로, 어떤 형세나 세력이 갑자기 기울어지거나 헤어져 흩어지는 모양을 비유하므로 알맞지 않다.
> ❺ '풍월주인(風月主人)'은 '맑은 바람과 밝은 달 따위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알맞지 않다.

18 '무심하게'는 아무런 생각이나 감정이 없게'라는 의미로, 슬픔을 참지 못하는 태도를 나타낼 때 쓰기에 알맞지 않다. 여기에는 '처절하게'나 '서럽게'와 같은 말이 어울린다.

오답노트
❶ '모진'은 '마음씨가 몹시 매섭고 독한'의 의미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문맥과 잘 어울린다.
❷ '연군'은 '임금을 그리워함'을 의미하며 시조의 주제로 자주 활용되어 제시된 문장에 잘 어울린다.
❸ '백년해로'는 '부부가 되어 평생을 함께 늙음'을 의미하는 한자 성어로, 제시된 문장에 잘 어울린다.
❹ '추모'는 '죽은 사람을 그리며 뜻을 기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독립운동으로 목숨을 잃은 영웅들'을 기리는 문맥에 잘 어울린다.

19 겨울을 이겨내고 '싹이 새로 돋아나오기 시작하는'이라는 의미의 '움튼'과, '기억이 또렷하지 않고 희미하게'라는 의미의 '아련하게'가 문맥상 어울린다.

20 제시된 설명은 귀신처럼 자유자재로 나타났다 나타나지 않았다 한다는 의미로, 날쌔게 나타났다 숨었다 하면서 그 움직임을 쉽게 알 수 없음을 이르는 한자 성어인 '신출귀몰(神出鬼沒)'에 해당한다.

오답노트
❶ '망망대해'는 '한없이 크고 넓은 바다'를 의미하므로 제시문의 설명과 관련이 없다.
❸ '만경창파'는 '만 갈래의 푸른 물결'이라는 뜻의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를 이르는 말이므로 제시문의 설명과 관련이 없다.
❹ '노심초사'는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을 의미하므로 관련이 없다.
❺ '횡래지액'은 '뜻밖에 느닷없이 당하는 재앙이나 불행'을 의미하므로 관련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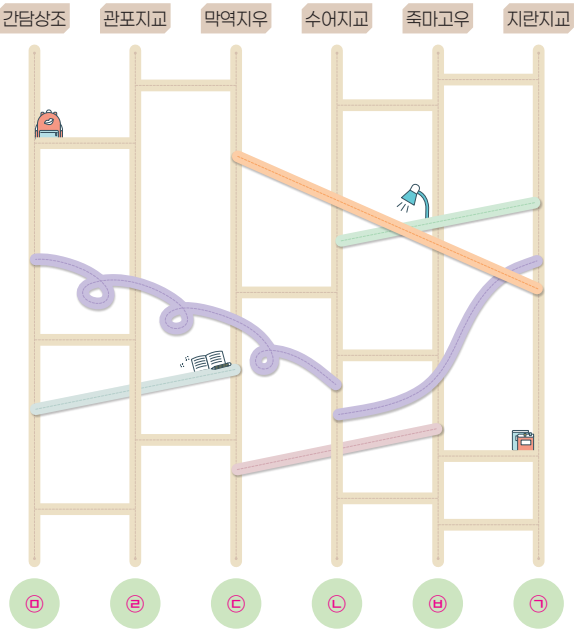
알면 든든 우리말 표현

확인 문제

본문 092~093쪽

01 ㉠ 지란지교 ㉡ 관포지교 ㉢ 막역지우 ㉣ 죽마고우 ㉤ 간담상조 ㉥ 수어지교 **02** 친구, 옷 **03** 물, 고기
04 고슴도치 **05** ㉣ **06** ㉢ **07** ㉠
08 바늘 가는 데 실 간다

01



08



'바늘 가는 데 실 간다'는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서로 아주 밀접하여 늘 붙어 다니는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즉, 제시된 만화와 같이 항상 붙어서 함께 행동하는 다정한 친구들이나 바늘과 실처럼 한쪽이 없으면 다른 한쪽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아주 긴밀한 사이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어휘를 알면 문제 속 숨은 단서가 보여요.



독서 학습 어휘

11 논리적 사고와 판단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098쪽

1 (1) ○ (2) ○
2 (1) 경향 (2) 선호 (3) 정의
3 (1) 당위성 (2) 규명할 (3) 직관
4 ③

3 (1) 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 할 성질을 뜻하는 '당위성'이 문맥상 정당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데 알맞다. '동질성'은 사람이나 사물의 바탕이 같은 성질이나 특성을 뜻하므로 문맥에 맞지 않다.
(2) '규명하다'는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히다를 뜻하므로 '규명할'이 문맥에 알맞다. '규제할'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을'을 뜻하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3) 추론 없이 대상을 직접 파악하는 능력이 '직관'이므로 '한눈에 꿰뚫어 보는' 문맥에 알맞다. '이성(理性)'은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을 감각적 능력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4 '사실 판단'은 판단의 내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과학적·역사적 탐구 등의 방법으로 경험적 검증이 가능하므로 참과 거짓을 객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 반면 '가치 판단'은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어 참과 거짓을 객관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2회 본문 101쪽

1 (1) 당면했을 (2) 난제 (3) 절충할 (4) 편협한, 편파성
2 (1) 극단적 (2) 배타적 (3) 순차적
3 ④
4 예시 문장 형사는 다시 한번 사건의 모든 면을 검토했다.

1 (1) 어떤 일이나 상황을 바로 앞에 직접 맞닥뜨린다는 뜻을 담은 '당면했을'이 문맥에 알맞고, '당도했을'은 어떤 목적지나 장소에 다다랐다는 뜻을 담고 있으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2) 해결하기 힘들거나 어려운 문제를 뜻하는 '난제'가 문맥에 알맞고, '화제'는 이야기의 거리나 소재를 뜻하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3) 서로 다른 주장이나 의견을 조율하여 차이점을 없애고 중간점을 찾는다는 뜻을 담은 '절충할'이 문맥에 알맞고, '대비할'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미리 준비한다는 뜻을 담고 있으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4) '생각이나 마음이 좁고 한쪽으로 치우쳐 도량이 좁고 너그럽지 못한'을 뜻하는 '편협한'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공정성을 잃는 성질을 뜻하는 '편파성'이 문맥에 알맞고, '막연한'은 '뚜렷하지 않고 어렴풋한'를 뜻하며 '편의성'은 형편이나 조건 따위가 편하고 좋은 특성을 뜻하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2 (1) 중용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쳐 지나친 성질을 뜻하는 '극단적'이 '모 아니면 도'라는 문맥에 알맞다.
(2) 남을 배척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성질을 뜻하는 '배타적'이 '의견을 배척하거나 거부하는' 문맥에 알맞다.
(3) 순서나 차례를 따르는 성질을 뜻하는 '순차적'이 '과정을 차례대로' 촬영했다는 문맥에 알맞다.

3 '편협한'은 '한쪽에 치우쳐 도량이 좁고 너그럽지 못한'을 의미한다. '유연한'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융통성이 있는'을 의미하므로, '편협한'과 바꿔 쓰기에 알맞지 않다.

오답노트
❶ '편향된'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을 뜻하므로 생각이나 시각이 치우친 태도를 나타내는 '편협한'과 바꿔 쓰기에 알맞다.
❷ '치우친'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쏠린'을 뜻하므로 생각이나 태도가 편중되었음을 나타내는 '편협한'과 바꿔 쓰기에 알맞다.
❸ '편중된'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을 뜻하므로 생각이나 시각이 치우쳐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편협한'과 바꿔 쓰기에 알맞다.
❺ '협소한'은 '사물을 보는 안목이나 아량이 좁은'을 뜻하므로 시야나 사고가 넓지 못함을 나타내는 '편협한'과 바꿔 쓰기에 알맞다.

4 '실마리'는 일이나 사건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첫머리라는 의미이다.

12 정보의 구성과 분석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104쪽

1 (1) 과도 (2) 포괄 (3) 일반화 (4) 재구성
2 (1) 매체 (2) 우선시
3 (1) × (2) ○ (3) ×
4 ④

1 (1) '과도'는 정도가 지나침을 의미하므로, 상대에게 반발을 일으킬 만큼 심한 간섭을 가리키는 데 알맞다.
(2)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하나로 묶어 다스리거나 포함함을 뜻하는 '포괄'이 '몸을 움직이는 여러 활동을 모두 다룬다'는 문맥에 알맞다.
(3) 개별적인 사실에서 보편적인 법칙이나 성질을 이끌어 냄을 뜻하는 '일반화'가 '한두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고 여긴다'는 문맥에 알맞다.
(4) 한 번 구성하였던 것을 다시 새롭게 구성함을 뜻하는 '재구성'이 '어려운 글을 이해하기 쉽게 다시 만들어 설명한다'는 문맥에 알맞다.

3 (1) '세부적'은 세세한 부분까지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3) '순화되다'는 '불순한 것이 제거되어 순수해지다'는 뜻이다. '약화되다'와 반대 의미를 지닌 단어는 '강화되다'이다.

4 '분산하다'는 갈라져 흩어지게 한다는 뜻인 반면 '집중하다'는 '한곳을 중심으로 하여 모이다. 또는 그렇게 모으다.'라는 의미이므로 바꿔 쓸 수 없다.

오답 노트

❶ '나누어'는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갈라지게 하여'를 뜻하므로 관중을 여럿으로 갈라지게 하는 '분산하여'와 바꿔 쓰기에 알맞다.

❷ '흩뜨려'는 '한곳에 모여 있는 것을 갈라져 떨어지게 하여'를 뜻하므로 관중이 한곳에 몰리지 않게 하는 '분산하여'와 바꿔 쓰기에 알맞다.

❸ '퍼뜨려'는 '넓은 범위에 널리 미치게 하여'를 뜻하므로 관중을 여러 출구로 넓게 나누는 '분산하여'와 바꿔 쓰기에 알맞다.

❺ '배분하여'는 '몫몫이 나누어 주어'를 뜻하므로 관중을 여러 출구로 나누어 배치하는 '분산하여'와 바꿔 쓰기에 알맞다.

2회

본문 107쪽

1 (1) ㉢ 개요 (2) ㉡ 이해관계 (3) ㉠ 예상 독자
2 (1) 점검했다 (2) 조직하고 (3) 불가피한
3 (1) 구분하여 (2) 분석하여 (3) 수용하기로
4 (예시 문장) 거리의 간판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어져 동네의 개성이 사라졌다.

1 (1) '개요'는 간결하게 추려 낸 주요 내용을 뜻하므로 '보고서를 쓰기 전에 전체 내용의 방향을 잡는다'는 ㉢에 어울린다.
(2) '이해관계'는 이익과 손해에 관련된 관계를 뜻하므로 '두 기업 사이에 이익과 손해가 얽혀 있다'는 ㉡에 어울린다.
(3) '예상 독자'는 글을 읽을 것으로 생각하는 대상을 뜻하므로 '어린이를 읽는 대상으로 설정한다'는 ㉠에 어울린다.

2 (1) 낱낱이 살펴보고 검사했다를 뜻하는 '점검했다'가 소화기와 비상구를 꼼꼼히 확인한다는 문맥에 알맞다.
(2)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사람이나 단체를 짜서 체계를 만든다는 뜻을 담은 '조직하고'가 봉사 활동을 위해 각 조를 새로 만든다는 문맥에 알맞다.
(3) '피할 수 없는'을 뜻하는 '불가피한'이 학생 수 감소로 학교를 통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나타내는 문맥에 알맞다.

3 (1)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갈라 나누어'라는 뜻의 '구분하여'가 신선도에 따라 나누어 결정한다는 문맥에 알맞고, '혼합하여'는 '두 가지 이상을 섞어'라는 뜻이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2) '얽혀 있는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누어'라는 뜻의 '분석하여'가 데이터를 상세히 파악해 원인을 밝혀내었다는 문맥에 알맞고, '검사하여'는 '사실을 조사하여 옳고 그름과 낫고 못함을 판단하여'라는 뜻이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3) '어떠한 요구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라는 뜻의 '수용하기로'가 설명을 듣고 상대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문맥에 알맞고, '달성하기로'는 '목적이나 목표를 이루기로'라는 뜻이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4 '천편일률적'은 여럿이 개별적 특성이 없이 모두 엇비슷한 것을 의미한다.

13 추론과 비판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110쪽

1 (1) × (2) ○ (3) ○
2 (1) 관점 (2) 대안 (3) 배경지식 (4) 맥락
3 (1) 추론 (2) 모색
4 ①

1 (1) '추가하다'는 '나중에 더 보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제외하다'와는 반대의 의미이다. '제외하다'는 '빼다'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2 (1)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입장이나 관찰하는 방향을 뜻하는 '관점'이 작가 자신만의 시각으로 글을 써 나간다는 문맥에 알맞다.
(2) 어떤 안을 대신하는 모색이나 안을 뜻하는 '대안'이 플라스틱 빨대를 대신하여 종이 빨대를 사용한다는 문맥에 알맞다.
(3) 새로운 정보나 글을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되는 기존의 지식을 뜻하는 '배경지식'이 내용 이해를 쉽게 해 주는 관련 지식을 나타내는 문맥에 알맞다.
(4) 사물이나 현상 따위가 서로 연관되어 이루는 상하 좌우의 관계나 흐름을 뜻하는 '맥락'이 발언의 전체 흐름을 고려하여 진짜 의미를 파악한다는 문맥에 알맞다.

4 첫 번째 문장은 식사와 건강이 서로 관련 있다는 의미이므로 ㉠에는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는 관계에 있게'라는 의미의 '밀접하게'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두 번째 문장의 연구 결과는 규칙적인 식습관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는 뒤 문장의 '근거'가 되므로 ㉡에는 '근거'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오답 노트

❷ '긴밀하게'는 ㉠에 들어갈 수 있으나, '시각'은 사물을 바라보는 입장을 뜻하므로 연구 결과를 앞선 주장의 바탕으로 제시하는 ㉡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❸ '어울리게'는 여럿이 모여 한 덩어리나 판이 되다라는 뜻을 담고 있으므로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야 하는 ㉠에 어울리지 않고, '의도(意圖)'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을 뜻하므로 ㉡에 어울리지 않는다.

❹ '유사하게'는 서로 비슷하다는 뜻을 담고 있으므로 관계의 밀접함을 나타내는 ㉠에 어울리지 않고, '분석'은 얽힌 것을 풀어헤쳐 따지는 일을 뜻하므로 ㉡에 어울리지 않는다.

❺ '일치하게'는 비교되는 대상들이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고 같거나 들어맞다는 것을 뜻하므로 ㉠에 어울리지 않고, '관점'은 사물을 보는 시각을 뜻하므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에 어울리지 않는다.

더 알아두기 '근거'의 뜻과 비슷한 단어

근거(根據)	어떤 의견이나 주장의 바탕이 되는 뿌리나 이유.
증거(證據)	어떤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여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물건이나 자취.
이유(理由)	어떠한 일이 일어난 까닭이나 명분.

2회

본문 113쪽

1 (1) 초래하여 (2) 주관적 (3) 객관적 (4) 선별한다
2 (1) × (2) ○ (3) ×
3 ②
4 예시 문장 내 의견을 믿지 않는 친구에게 확실한 사례를 들어 내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했다.

1 (1)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뜻하는 '초래하여'가 과장된 발언이 오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문맥에 알맞고, '수용하여'는 요구나 어떠한 상태를 받아들인다는 뜻이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2) 자기의 견해나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뜻하는 '주관적'이 감상이 개인마다 다르다는 문맥에 알맞고, '객관적'은 개인의 생각을 떠나 제삼자의 입장이나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3) 개인의 주관이나 감정을 떠나 사실 그대로를 다루는 것의 뜻을 담은 '객관적'이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배제한다는 문맥에 알맞고, '주관적'은 자기 자신의 견해나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뜻하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4) 가려서 골라내는 것의 뜻을 담은 '선별한다'가 내용에 알맞은 자료를 가려 뽑는다는 문맥에 알맞고, '설득한다'는 남을 따르도록 잘 설명하여 납득시킨다는 뜻을 담고 있으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2 (1) '주관적'은 자기 자신의 견해나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뜻하고 '객관적'은 제삼자의 입장이나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을 뜻하므로 두 단어는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다.
(3) '출처'는 사물이나 말 따위가 나온 근거를 뜻하므로 '자료의 출처'는 자료를 사용할 사람이 아니라 자료를 가져온 바탕이나 근원이 되는 출처나 매체를 의미한다.

3 ②는 소문이 퍼지면서 원래 사실과 달라진다는 뜻의 문장이므로 밑줄 친 부분에 '뒷받침하게'보다 '왜곡하게'를 사용하는 것이 알맞다.

오답 노트
❶ '설득력'은 '상대편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깨우치는 힘'을 뜻하므로 대중이 신뢰하는 인물이 등장하여 설득 효과를 낸다는 문맥에 알맞다.
❸ '왜곡하여'는 사실을 사실대로 다루지 않고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하는 것을 뜻하므로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을 다르게 전한다는 문맥에 알맞다.
❹ '신뢰도'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므로 조사 방법을 점검하여 자료를 더욱 믿을 수 있게 만든다는 문맥에 알맞다.
❺ '구체화하다'는 막연하던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만든다는 뜻을 담고 있으므로 계획을 한층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발전시킨다는 문맥에 알맞다.

4 '뒷받침하다'는 뒤에서 지지하고 도와준다는 의미이다.

종합 문제 11~13

본문 114~117쪽

01 ④	02 ②	03 ①	04 ③
수능형 ②	05 개요	06 ①	07 ⑤
08 (1) 객관적, 주관적 (2) 포괄한다 (3) 일반화하면 (4) 사실 판단			
09 ④	10 ⓒ	11 ⓓ	12 ⓔ
13 ⓑ	14 ⓐ	15 ②	16 ③
17 ⑤	18 ①	19 수용할	20 ②

01 '본질(本質)'은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을 뜻하는 말이다. '여러 단계의 추리를 거쳐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은 '추론(推論)'의 의미이다.

02 '선호하며'는 여럿 가운데서 특별히 가려서 좋아하며'라는 뜻이므로 '좋아하며'와 바꾸어 쓰기에 알맞다.

오답 노트
❶ '파악하며'는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알며'를 뜻하므로 대상을 좋아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좋아하며'와 바꿔 쓰기에 알맞지 않다.
❸ '해결하며'는 '제기된 문제를 해명하거나 얽힌 일을 잘 처리하며'를 뜻하므로 취향이나 선호를 나타내는 '좋아하며'와 바꿔 쓰기에 알맞지 않다.
❹ '판단하며'는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정하며'를 뜻하므로 대상을 좋아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좋아하며'와 바꿔 쓰기에 알맞지 않다.
❺ '직면하며'는 '어떤 일이나 상황을 직접 맞닥뜨리며'를 뜻하므로 마음의 끌림을 나타내는 '좋아하며'와 바꿔 쓰기에 알맞지 않다.

03 〈보기〉는 '관점'의 의미이다. 이 글에서 같은 대상이나 사건을 바라보더라도 시각이나 입장에 따라 다르게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에 들어갈 단어는 '관점'이 알맞다.

오답 노트
❷ '대안'은 어떤 안을 대신하는 모색이나 안을 의미하므로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뜻하는 〈보기〉의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다.
❸ '구성'은 몇 가지 요소나 부분으로 하나의 전체를 짜 맞춤을 뜻하므로 관찰하는 태도나 방향을 뜻하는 〈보기〉의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다.
❹ '분석'은 복잡한 현상이나 사실을 세부 성분으로 풀어헤쳐 밝힘을 뜻하므로 사물을 바라보는 방향을 뜻하는 〈보기〉의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다.
❺ '의견'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을 뜻하므로 사물을 관찰할 때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을 뜻하는 〈보기〉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04 '극단적'은 '① 길이나 일의 진행이 끝까지 미쳐 더 나아갈 데가 없는 것, ② 생각이나 행동이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균형적'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것'을 의미하므로 '극단적'과 '균형적'은 반의 관계이다.

오답 노트
❶ '실마리'와 '단서'는 모두 일이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머리나 바탕을 뜻하므로 유의 관계이다.
❷ '난제'와 '골칫거리'는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까다로운 일을 뜻하므로 유의 관계이다.

❹ '모색하다'와 '찾아내다'는 모두 일의 해결 방법이나 길을 더듬어 찾는 것을 뜻하므로 유의 관계이다.
❺ '초래하다'와 '일으키다'는 모두 어떤 결과나 상태를 불러와 나타나게 하는 것을 뜻하므로 유의 관계이다.

수능형 '노출될'은 '겉으로 드러날'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반면 '알아차릴'은 '낌새를 미리 알'의 의미이므로 두 단어는 바꿔 쓰기에 알맞지 않다.

오답노트
❶ '괴리되어'는 '서로 어우러지지 못하고 상반되거나 따로 떨어져'를 뜻하고, '동떨어져'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를 뜻하므로 문맥상 바꿔 쓰기에 알맞다.
❸ '초래하다'는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다'를 뜻하고, '불러온다'는 '어떠한 상태나 결과를 유발하다'를 뜻하므로 문맥상 바꿔 쓰기에 알맞다.
❹ '복귀하면서'는 '본래의 자리나 상태로 돌아가면서'를 뜻하고, '되돌아오면서'는 '향하던 곳에서 반대쪽으로 돌아오면서'를 뜻하므로 문맥상 바꿔 쓰기에 알맞다.
❺ '도모하는'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힘쓰거나 대책을 세우는'을 뜻하고, '꾀하는'은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머리를 써서 방도를 찾는'을 뜻하므로 문맥상 바꿔 쓰기에 알맞다.

05 설명문과 같은 글에 포함할 세부 항목을 정하여 글의 목적, 주제, 예상 독자 등에 맞게 배열하여 만드는 글의 뼈대를 '개요'라고 한다.

06 '통합하면'은 '둘 이상의 것을 하나로 합치면'이라는 뜻이다. '분산하면'은 '갈라져 흩어지면'을 뜻하므로 '통합하면'과 그 의미가 반대이다.

오답노트
❷ '포괄하면'은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하나로 묶어 다스리면'을 뜻하므로 '통합하면'과 의미가 유사하여 반대되는 단어로 알맞지 않다.
❸ '조직하면'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짜서 체계를 만들면'이라는 뜻이므로, '통합하면'과 반대되는 단어로 알맞지 않다.
❹ '정의하면'은 '어떤 개념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면'이라는 뜻이므로, '통합하면'과 반대되는 단어로 알맞지 않다.
❺ '점검하면'은 '낱낱이 살펴보고 검사하면'이라는 뜻이므로, '통합하면'과 반대되는 단어로 알맞지 않다.

07 '천편일률적'은 여럿이 개별적 특성이 없이 모두 엇비슷한 것을 의미한다. ⑤에서 어린 시절부터 주목을 받았다고 하였으므로 '천재적'이나 '창의적'과 같은 단어를 활용하는 것이 더 알맞다.

오답노트
❶ '재구성하여'는 '한 번 구성하였던 것을 다시 새롭게 구성하여'를 뜻하므로 흩어져 있던 정보를 글의 목적에 맞게 다시 정리한다는 문맥에 알맞다.
❷ '예상 독자'는 글을 읽을 것으로 생각하는 대상을 뜻하므로 안내문을 읽게 될 주요 대상이 노인임을 밝히는 문맥에 알맞다.
❸ '배경지식'은 새로운 정보나 글을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되는 기존의 지식을 뜻하므로 경기 관람을 돕는 축구 규칙에 대한 지식을 나타내는 문맥에 알맞다.
❹ '우선시하여'는 '다른 것보다 중요하게 보거나 일차적인 것으로 여기어'를 뜻하므로 여러 일 중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한다는 문맥에 알맞다.

08 (1) 제삼자의 입장이나 사실에 바탕을 두는 '객관적'이 온도계로 잰 기온 수치를 수식하는 문맥에 알맞고, 자기 자신의 견해나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주관적'이 개인이 느끼는 추위 정도를 수식하는 문맥에 알맞다.
(2)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하나로 묶어 다스림을 뜻하는 '포괄한다'가 그림, 음악, 무용 등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나로 묶어 포함한다는 문맥에 알맞다.
(3) 개별적인 것이나 특수한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되거나 그렇게 만드는 것을 뜻하는 '일반화하면'이 몇몇 학생의 지각 사실을 바탕으로 전체 학생을 종합해 결론 내리면 안 된다는 문맥에 알맞다.
(4)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참인지 거짓인지 가릴 수 있는 판단을 뜻하는 '사실 판단'이 참과 거짓을 분명히 가릴 수 있는 명제를 나타내는 문맥에 알맞다.

09 '가려내기'는 '여럿 가운데서 일정한 것을 골라내기'라는 뜻이다. '선별하기'는 '가려서 따로 나누기'라는 뜻이므로 바꿔 쓸 수 있다.

오답노트
❶ '가려내기'는 여럿 가운데 원하는 것을 골라내는 뜻을 담고 있는 반면, '구분하기'는 기준에 따라 가르는 뜻을 담고 있으므로 필요한 정보를 골라낸다는 문맥에 맞춰 바꿔 쓰기에 알맞지 않다.
❷ '추론하기'는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다른 사실을 미루어 생각하는 뜻을 담고 있으므로, 필요한 정보를 골라 선택한다는 '가려내기'와 바꿔 쓰기에 알맞지 않다.
❸ '정의하기'는 어떤 개념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뜻을 담고 있으므로,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뽑아낸다는 '가려내기'와 바꿔 쓰기에 알맞지 않다.
❺ '구체화하기'는 막연하던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만든다는 뜻을 담고 있으므로 여럿 중에서 알맞은 정보를 골라내는 '가려내기'와 바꿔 쓰기에 알맞지 않다.

15 '불가피한'은 '피할 수 없는'이라는 뜻이다. '공평하지 않은'과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불공평한'이다.

16 '제외하다'는 따로 떼어 내어 한데 헤아리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보기〉에서는 예산이 많이 드는 곳을 체험 학습 장소에서 제외했다고 표현할 수 있다.

오답노트
❶ '절충하다'는 서로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알맞게 조율하여 타협점을 찾는다는 것을 뜻하므로 후보에서 조건에 맞지 않는 장소를 뺀다는 〈보기〉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
❷ '밀접하다'는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거나 관계가 깊다는 것을 뜻하므로 후보에서 조건에 맞지 않는 장소를 뺀다는 〈보기〉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
❹ '구분하다'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갈라 나눈다는 것을 뜻하므로 단순히 기준을 제시해 나누는 것을 넘어 특정 장소를 완전히 뺀다는 〈보기〉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
❺ '일반화하다'는 개별적인 사실에서 보편적인 법칙이나 개괄적인 사실을 이끌어 낸다는 것을 뜻하므로 후보에서 조건에 맞지 않는 장소를 뺀다는 〈보기〉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

17 '모색하다'는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다'를 뜻한다.

오답노트

❶은 '화제', ❷는 '경향', ❸은 '점검하다', ❹는 '맥락'의 의미이다.

18 '배타적'은 한 개인이나 집단의 입장에 서서 그 외의 사람이나 집단을 제외하거나 배척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기〉의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타협적'과 의미상 반대된다.

오답노트

❷ '세부적'은 '작고 덜 중요한 부분까지 미치는'을 뜻하므로 양보하여 협의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타협적'과 반대되는 단어로 알맞지 않다.

❸ '설득적'은 '상대방이 따르도록 잘 설명하여 납득시키는'을 뜻하므로 양보하여 협의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타협적'과 반대되는 단어로 알맞지 않다.

❹ '편파적'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을 뜻하므로 서로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는 '타협적'과 반대되는 단어로 알맞지 않다.

❺ '포괄적'은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하나로 묶어 다스리는'을 뜻하므로 양보하여 협의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타협적'과 반대되는 단어로 알맞지 않다.

19 '상대가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상대도 그것을 기꺼이 수용할 가능성이 커진다.'에서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다'는 의미를 지닌 '수용할'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다.

20 ㉠에는 문맥상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나 어려운 사건을 의미하는 '난제'가, ㉡에는 믿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신뢰도'가 들어가야 알맞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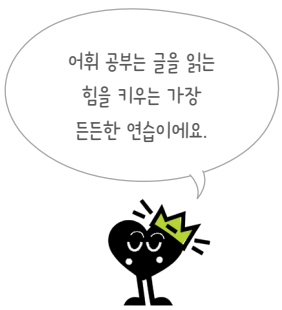
오답노트

❶ '명제'는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문장을 뜻하므로 ㉠에 어울리지 않고, '편파성'은 한쪽으로 치우친 성질을 뜻하므로 ㉡에 어울리지 않는다.

❸ '경향'은 어떠한 방향으로 기우는 현상이나 추세를 뜻하므로 ㉠에 어울리지 않는다.

❹ '난제'는 ㉠에 들어갈 수 있으나, '이해관계'는 이익과 손해의 관계를 뜻하므로 ㉡에 어울리지 않는다.

❺ '경향'은 기우는 추세를 뜻하므로 ㉠에 어울리지 않고, '이해관계'는 이익과 손해의 관계를 뜻하므로 ㉡에 어울리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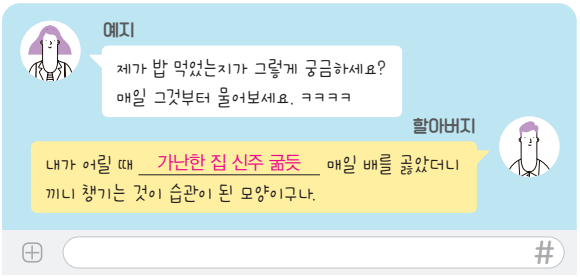
알면 든든 우리말 표현

확인 문제

본문 120~121쪽

01 하늘 **02** 제사 **03** 나라, 나라
04 가난한 집 신주 굶듯 **05**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06 코 묻은 돈 **07** 돈을 굴리다
08 돈방석에 앉다 **09** 깡통을 차다
10 밥숟가락이나 뜨다 **11** 바가지를 쓰다

04



제시된 대화에서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매일 밥을 먹었는지 물어보며, 자신이 어릴 때 매일 배를 곯았던 탓에 생긴 습관임을 털어놓고 있다. 이처럼 줄곧 굶주리며 어렵게 지내는 모양을 뜻할 때 쓰는 속 담은 '가난한 집 신주 굶듯'이다.

05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양식이 없어 소화가 되지 않는 거친 소나무 껍질이나 풀뿌리를 먹다가 심한 변비에 걸려 항문(똥구멍)이 찢어지기까지 했던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비롯된 속담이다.

06~10

키	동	돈	방	석	에	앉	다
깡	통	을	차	다	오	공	아
물	동	굴	머	리	자	방	코
추	오	리	찬	긁	잡	내	묻
에	랑	다	물	을	책	물	은
좋	절	칼	자	떼	을	돌	돈
밥	숟	가	락	이	나	뜨	다

11 제시된 글에는 상인의 그럴듯한 거짓말에 속아 물건값을 실제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 사게 되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요금이나 물건값을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지불하여 손해를 볼 때 쓰는 관용적 표현은 '바가지를 쓰다'이다.

독서 영역별 어휘 ❶

14 내면과 도덕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126쪽

1 (1) ㉡ (2) ㉠ (3) ㉢
2 (1) 타자 (2) 욕구 (3) 억제 (4) 자아
3 (1) 확충 (2) 지양
4 ①

2 (1) 비밀을 알릴 수 없는 대상이라는 맥락이므로,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을 뜻하는 '타자'가 알맞다.
(2) 광고를 통해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을 유발한다는 맥락이므로, 무엇을 얻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욕구'가 알맞다.
(3) 동생을 향한 질투심이라는 '감정을 눌러 참는다'는 의미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감정이나 충동을 눌러 참음을 의미하는 '억제'가 알맞다.
(4) 괄호 뒤의 '실현'과 결합하여 '자기 자신의 잠재력이나 가치를 이루어 낸다'는 의미를 만드는 것이 맥락에 어울리므로, 자기 자신을 뜻하는 '자아'가 알맞다.

4 스피노자는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선(善)으로, 자신에게 슬픔을 주는 것을 악(惡)이라고 보고 선(善)을 추구하라고 하였다. 따라서 빈칸에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함. 또는 그 방향이나 그쪽으로 쏠리는 의지'를 의미하는 '지향'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오답노트
❷ '지양'은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❸ '억제'는 '감정이나 욕망, 충동적 행동 따위를 내리눌러서 그치게 함'을 의미한다.
❹ '단련'은 '수양'과 유사한 말로, '시련이나 체험, 실천 등으로 몸과 마음을 닦고 길러 굳세게 함'을 의미한다.
❺ '수양'은 '몸과 마음을 갈고닦아 품성이나 지식, 도덕 따위를 높은 경지로 끌어올림'을 의미한다.

2회 본문 129쪽

1 (1) 선의 (2) 이타적인 (3) 존엄성
2 (1) 자애 (2) 분별 (3) 사유
3 ③
4 (예시 문장) 동생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장난감을 혼자 독차지하려는 형의 독단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다.

1 (1) 좋은 뜻이나 선한 마음을 뜻하는 '선의'가 문맥에 알맞고, '상의'는 서로 논의한다는 뜻이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2) 괄호 앞의 '남을 먼저 배려하는'과 호응하므로 자신보다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뜻의 '이타적인'이 문맥에 알맞고, '이기적인'은 자기의 이익만을 꾀한다는 뜻이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3) 앞서 언급된 '범죄자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정책'은 범죄자 역시 존중받아야 할 인간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바탕을 둔다. 따라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고귀한 성질을 뜻하는 '존엄성'이 문맥에 알맞고, '존재성'은 존재하는 특성 자체를 뜻하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2 (1) 자식이나 손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을 뜻하는 '자애'가 손주에 대한 할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문맥에 알맞다.
(2) 두 형제가 너무 닮아 서로 구별하거나 가려내기 힘들다는 맥락이므로, 사물을 갈라 구별함을 의미하는 '분별'이 문맥에 알맞다.
(3) 책을 읽으며 타인의 생각과 관념을 따라가고 생각을 확장하는 맥락이므로, '개념, 구성, 판단 등을 행하는 인간의 이성 작용'을 뜻하는 '사유'가 들어가는 것이 문맥에 알맞다.

3 제시된 글은 자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남의 합리적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가 소통을 막고 갈등을 키운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자기중심의 좁은 생각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하는 태도'를 뜻하는 '아집'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알맞다.

오답노트
❶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따사롭고 돈독한 사랑'인 '자애'는 타인의 의견을 배척하고 갈등을 키우는 본문의 맥락과 맞지 않다.
❷ '좋게 생각하여 주는 마음'인 '호의'는 제시된 글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태도와는 맞지 않다.
❹ '생각하고 궁리함'을 뜻하는 '사고'는 문맥적 의미로 보았을 때 빈칸에 넣기에는 알맞지 않다.
❺ '분별하여 알아봄' 또는 '분간하여 변별함'을 뜻하는 '식별'은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집을 피운다는 본문의 맥락과 맞지 않다.

4 '독단'은 '남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판단하거나 결정함'을 의미한다.

15 문화와 편견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132쪽

1 (1) ○ (2) × (3) ○
2 (1) 역할 (2) 집단 (3) 사회화
3 사대주의, 상대주의
4 (예시 문장) 한국의 매운 볶음면이 챌린지 영상을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되어 인기를 끌고 있다.

1 (2) 인간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생활하도록 기성세대의 사상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회화'에 대한 설명이다.

2 (1)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자기가 맡은 바 임무나 할 일'을 의미하는 '역할'이 알맞다.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한인촌'이라고 하였으므로, '여럿이 모여 이룬 무리'를 의미하는 '집단'이 알맞다.
(3) 사회의 규범과 문화를 배워 고유한 인격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뜻하는 '사회화'가 아동의 성격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맥에 알맞다.

3 자기 문화보다 다른 문화를 우월하다고 여기는 '사대주의'가 그릇된 태도를 가리키는 첫 번째 문맥에 알맞고,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 '상대주의'가 문화적 편견을 깨는 관점을 나타내는 두 번째 문맥에 알맞다.

4 '전파'는 전하여 널리 퍼뜨림을 뜻한다.

2회

본문 135쪽

1 (1) 무례 (2) 폄하
2 (1) ㉠ 편견 (2) ㉢ 고착화 (3) ㉡ 딜레마
3 (1) 경시 (2) 배제 (3) 관습적
4 ③

2 (1)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나 견해를 의미하는 '편견'은 외모만 보고 사람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에 어울린다.
(2)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굳어져 변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고착화'가 과거에 빈부의 격차가 계속 이어져 굳어진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에 어울린다.
(3) 두 가지 선택지 중 어느 쪽도 결정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태를 의미하는 '딜레마'가 어느 쪽도 지지할 수 없는 처지를 나타내는 ㉡에 어울린다.

더 알아두기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차별

구분	의미	예
선입견	어떤 대상에 대해 이미 마음속에 미리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관점.	키가 작은 학생은 키가 큰 학생보다 농구를 못할 것이다.
편견	대상에 대해 한쪽으로 치우친 부정적인 평가나 감정.	키가 작은 학생들과 같이 농구해 봤자 이기지도 못할 것이다.
차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등급이나 수준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행동.	키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농구 선수 선발 기회도 주지 않는다.

3 (1) 남의 의견을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김을 의미하는 '경시'가 문맥에 알맞고, '중시'는 가치 있게 여긴다는 의미이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2) 밀어내어 물리치거나 제외함을 의미하는 '배제'가 문맥에 알맞고, '결례'는 예의범절에서 벗어나는 짓을 함을 의미하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3)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에 따른 것을 의미하는 '관습적'이 문맥에 알맞고, '자발적'은 남이 시키거나 요청하지 아니하여도 자기 스스로 나아가 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4 이 글에서는 우리가 가족에 대해 가졌던 일반적인 생각을 이야기한 후, 믿을 수 있는 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여 주면서 그 생각이 깨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생각'을 뜻하는 '통념'이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가족에 대한 생각을 말하기에 가장 알맞다.

오답노트
❶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함'의 뜻인 '보편'이 의미상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보편'이 수식하는 대상이 없으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❷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업신여김'의 뜻을 가진 '경시'를 빈칸에 넣어 보면 가족의 개념에 대하여 경시했다는 말이 되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❹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의 뜻인 '배제'를 빈칸에 넣어 보면 가족의 개념을 배제해 왔다는 말이 되므로 알맞지 않다.
❺ '남의 주장에 자기의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보조를 맞춤'의 뜻을 가진 '동조'를 빈칸에 넣으면 문맥과 전혀 맞지 않다.

16 역사와 시대의 흐름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138쪽

1 (1) ○ (2) ○ (3) ×
2 (1) 발굴 (2) 도래 (3) 문명 (4) 등재
3 (1) 성쇠 (2) 유물 (3) 사료
4 ④

1 (3) 사회의 여러 가지 물질적, 기술적인 측면의 발전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물을 '문명'이라고 한다.

2 (1) '이곳'에서 '고려청자 가마터' 유적을 찾아내었다는 맥락이므로, 땅속에 묻힌 물건이나 가치 있는 대상을 찾아냄을 의미하는 '발굴'이 알맞다.
(2) 서구의 문물이 들어와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었다는 맥락이므로, 외부의 대상이나 문화가 들어옴을 의미하는 '도래'가 알맞다.
(3) 자동차와 같이 인류를 편하게 하는 도구를 나타내는 맥락이므로, 인류가 발달시킨 물질적·정신적 기술 및 생활양식을 의미하는 '문명'이 알맞다.
(4) 족보에 자손들을 올려 실었다는 맥락이므로, 서류나 장부 따위에 올림을 뜻하는 '등재'가 알맞다.

3 (1) 성하고 쇠퇴함을 의미하는 '성쇠'가 '문화의 쇠퇴함과 왕성함'을 나타내는 문맥에 알맞고, '쇠잔'은 힘이나 세력이 점점 약해짐을 의미하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2) 과거 인류가 남긴 물건이나 자취를 뜻하는 '유물'이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 물건을 나타내는 문맥에 알맞고, '유형'은 형태나 성질이 같은 무리를 뜻하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3) 역사 연구의 재료가 되는 옛 기록이나 유물을 의미하는 '사료'가 문맥에 알맞고, '사초'는 역사책을 만드는 바탕이 되는 기록을 의미하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4 ㉠~㉢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앞 세대가 물려준 문화이자 가치 있는 물질적, 정신적 전통을 의미하는 '유산'이 알맞다.

오답 노트
❶ '흥망'은 잘되어 일어남과 못되어 없어짐을 의미한다.
❷ '문명'은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기술적, 사회 구조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❸ '야만'은 미개하여 문화 수준이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❺ '발원지'는 어떤 사회 현상이나 사상 따위가 맨 처음 생기거나 일어난 곳을 의미한다.

2회

본문 141쪽

1 (1) 탈피 (2) 쇄신 (3) 경계 (4) 진보
2 (1) 정체성 (2) 전통
3 ⑤
4 (예시 문장) 한국어의 역사적 변화를 다루는 것은 통시적 관점이고, 오늘날 각 지역의 사투리를 비교하는 것은 공시적 관점이다.

1 (1)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 선진국이 되었다는 맥락이므로, 낡은 틀이나 상태에서 벗어남을 의미하는 '탈피'가 알맞다.
(2) 개혁을 위해 세대를 교체하고 지도력을 새롭게 바꾼다는 맥락이므로, 나쁜 요소나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함을 의미하는 '쇄신'이 알맞다.
(3) 과거 영토의 한계선이나 구분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맥락이므로, 지역과 지역이 구분되는 한계를 의미하는 '경계'가 알맞다.
(4) 언어를 바탕으로 인류가 발전하고 성장해 왔다는 맥락이므로, 정도나 수준이 더 높아지거나 발전함을 의미하는 '진보'가 알맞다.

3 이 글은 전통문화의 개념과 그것이 갖는 의의를 설명하고, 전통문화를 물려받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조상의 전통이나 문화유산, 업적 따위를 물려받아 이어 나감'을 뜻하는 '계승'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오답 노트
❶ '답습'은 예로부터 해 오던 방식이나 수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❷ '쇄신'은 잘못된 것이나 오래된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함을 의미한다.
❸ '인습'은 예전의 풍습, 습관, 예절 따위를 그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통문화는 옛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물려받아 이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습'은 알맞지 않다.
❹ '세습'은 한집안의 재산이나 신분, 직업 따위를 대대로 물려주고 물려받음을 의미한다.

4 '통시적'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사물의 변화와 관련되는 것을 의미하고, '공시적'은 어떤 특정 시기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17 경제와 법 질서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144쪽

1 (1) ㉡ 재화 (2) ㉢ 이윤 (3) ㉠ 생산
2 (1) ○ (2) ×
3 (1) 경영 (2) 재정 (3) 경기
4 ①

1 (1) 사람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 주는 물건을 의미하는 '재화'가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구체적 물건이나 물질을 나타낼 수 있는 ㉡에 어울린다.
(2)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총수입에서 각종 비용을 뺀 순수한 이익을 의미하는 '이윤'이 당장 이익이 크게 남지 않는다는 ㉢에 어울린다.
(3)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만들어 내는 활동을 의미하는 '생산'이 석유를 만들어 내는 지역을 나타내는 ㉠에 어울린다.

2 (1)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올바름을 의미하는 '형평성'이 소득 수준에 맞게 세금을 나누어 내는 경제적 공평함을 나타내는 문맥에 알맞다.
(2) '희소성'은 인간의 물질적 욕구에 비하여 충족 수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제한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제한되어 있지 않거나 넘친다'는 설명은 알맞지 않다.

3 (1) 기업이나 사업 등을 운영해 나감을 뜻하는 '경영'이 부실한 회사 운영으로 파산했다는 문맥에 알맞고, '영리'는 재산상의 이익을 꾀함을 의미하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2)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행정 활동을 위해 수입을 얻고 지출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하는 '재정'이 무리한 축제 개최로 인해 맞게 된 위기를 나타내는 문맥에 알맞고, '세금'은 국민이 내는 돈 자체를 뜻하므로 위기의 주체로 쓰기에 알맞지 않다.
(3) 매매나 거래 등 경제 활동의 전반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경기'가 시장 경제 활동이 위축되었다는 문맥에 알맞고, '재화'는 사람이 바라는 개별적인 물건을 의미하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4 정부의 재정에 의해 공급되어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한다. 제시된 글에서는 공공재의 뜻과 활용되는 예를 설명하고 있다.

오답 노트

❷ '민간재'는 민간 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생산되어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를 의미하므로 정부 재정으로 공급하여 모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재화를 가리키는 문맥에 알맞지 않다.

❸ '사유재'는 개인이 소유하여 독점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를 의미하므로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재화를 설명하는 문맥에 알맞지 않다.

❹ '소비재'는 사람들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직접 소비하는 재화를 의미하므로 국방, 치안 등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 서비스의 성격을 대표하는 단어로 알맞지 않다.

❺ '자본재'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나 설비 등의 재화를 의미하므로, 국방이나 치안 등 국민 전체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공급되는 재화를 설명하는 문맥에 알맞지 않다.

2회

본문 147쪽

1 (1) 공익 (2) 강제성 (3) 소송
2 (1) 야기 (2) 행사 (3) 분쟁
3 ④
4 예시 문장 친구의 사생활을 허락 없이 조사하거나 퍼뜨리지 않을 것이다.

2 (1)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불러일으킴을 의미하는 '야기'가 전쟁이 문화재가 사라지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문맥에 알맞고, '이기'는 이로움과 편리함을 의미하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2) 권리나 권력, 자격 등을 실제로 행사함을 의미하는 '행사'가 저작권을 실제 권리로 사용한다는 문맥에 알맞고, '사행'은 행실이 바르지 못함을 의미하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3) 집단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이나 시비를 의미하는 '분쟁'이 영토 소유권을 두고 다툴 이유가 없다는 문맥에 알맞고, '전쟁'은 국가 간에 무력을 사용하는 싸움을 의미하므로 문맥상 과장되어 맞지 않다.

3 이 글에는 지식재산처가 유명 캐릭터와 로고를 무단으로 베껴 불법 학용품을 만들어 판 업체들을 찾아내어 밝힌 상황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로는 '숨겨져 있는 일이나 드러나지 아니한 것을 들추어냄'을 의미하는 '적발'이 가장 알맞다.

오답 노트

❶ '분쟁'은 서로 시끄럽게 다툼을 의미하는데, 지식재산처가 불법 업체와 다툼을 벌인 것은 아니므로 알맞지 않다.

❷ '소송'은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 관계를 확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인데, 지식재산처와 불법 업체 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알맞지 않다.

❸ '야기'는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키는 것인데, 지식재산처가 어떤 사건을 일으킨 것은 아니므로 알맞지 않다.

❺ '행사'는 권리의 내용을 실현한다는 의미인데, 지식재산처가 불법 업체를 상대로 어떤 권리를 실현한 것은 아니므로 알맞지 않다.

4 '인권'은 인종, 성별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인간으로서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종합 문제 14~17

본문 148~151쪽

01 정체성	02 ⑤	수능형 ④	03 ④
04 ①	05 ⑤	06 ②	07 등재
08 발굴	09 집대성	10 (1) ㉡ (2) ㉠	
11 ①	12 ④	13 ②	14 ②
15 생산	16 이윤	17 경기	18 ④
19 ⑤	20 ④		

02 '탈피'는 낡은 습관이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감을 뜻하는 말이다. 범위에 들지 못하고 떨어지거나 빠지다는 뜻은 '탈락'에 해당한다.

수능형 '변용'은 '사물의 모습이나 형태가 바뀜, 또는 그 바뀐 모습'을 뜻하는 말이다. 즉, 형태가 바뀌었다는 뜻이므로 없어졌다는 의미의 '사라졌다'로 바꿔 쓰기에 알맞지 않다.

오답 노트

❶ '탈피해야'는 '틀이나 상태에서 벗어나야'를 의미하므로 '벗어나야'와 바꿔 쓰기에 알맞다.

❷ '전파되었다'는 '소문이나 문화가 널리 퍼졌다'를 의미하므로 '널리 퍼졌다'와 바꿔 쓰기에 알맞다.

❸ '융합된'은 '서로 다른 것이 하나로 합쳐진'를 의미하므로 '하나로 합쳐진'과 바꿔 쓰기에 알맞다.

❺ '계승하는'은 '조상의 전통이나 문화유산 등을 물려받아 이어 나가는'을 의미하므로 '물려받아 잇는'과 바꿔 쓰기에 알맞다.

03 '사대주의'는 주체성 없이 세력이 강한 나라나 사람을 받들어 섬기는 태도를 뜻한다. 〈보기〉에서는 자기 문화를 낮추고 남의 것만 우월하다고 믿는 태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사대주의'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오답 노트

❶ '집단'은 여럿이 모여 이룬 무리를 의미하므로 자기 문화를 낮추고 남의 문화만 우월하게 믿는 태도를 가리키는 문맥에 알맞지 않다.

❷ '본성'은 품성이나 바탕을 의미하므로 주체성을 잃은 그릇된 문화적 태도를 가리키는 문맥에 알맞지 않다.

❸ '타자'는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을 의미하므로 문화 판단의 주체성이나 왜곡된 관점을 설명하는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지 않다.

❺ '상대주의'는 각 문화의 고유한 가치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점을 의미하므로, 자기 문화를 무조건 낮추어 보는 그릇된 태도를 뜻하는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지 않다.

더 알아두기 **자문화 중심주의**

자신의 문화만 우수하다고 여기며 다른 문화는 열등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바라보는 태도.

장점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됨.
단점	편견에 사로잡혀 다른 문화를 무시하거나 차별하게 되어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

04 '재정'은 국가나 공공 단체가 자금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용하는 경제 활동을, '공공재'는 모두가 공동으로 누리는 재화를 뜻한다. 따라서 ㉠에는 재정, ㉡에는 공공재가 들어가야 한다.

오답노트

❷ '세금'은 국민이 국가에 내는 돈 자체를 뜻하므로 나라 살림 활동을 나타내는 ㉠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지 않다. '재정'은 ㉡에 들어갈 공공재를 대체하기에 알맞지 않다.

❸ '형평성'은 균형이 올바름을 의미하므로 도로나 공원처럼 함께 쓰는 재화를 가리키는 ㉡에 알맞지 않다.

❹ '세금'은 나라 살림 전체를 의미하는 ㉠에 들어가기에 의미상 알맞지 않다.

❺ '형평성'은 나라 살림을 뜻하는 ㉠에 들어가기에 의미상 알맞지 않다.

05 '수양'은 몸과 마음을 갈고닦아 품성이나 지식을 높은 경지로 끌어올림을 의미한다. 오해로 다투어 마음이 상한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⑤의 쓰임은 알맞지 않다.

오답노트

❶ '욕구'는 무엇을 얻거나 하고자 바라는 욕심을 의미하므로 쉬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문맥에 알맞다.

❷ '지향'은 어떤 목표에 뜻이 쏠리어 향함을 의미하므로 평화로운 사회를 목표로 삼는 문맥에 알맞다.

❸ '억제'는 분노나 감정 따위를 누름을 의미하므로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는 문맥에 알맞다.

❹ '중용'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한, 떳떳하며 변함이 없는 상태나 정도를 의미하므로 치우치지 않는 자세를 가리키는 문맥에 알맞다.

06 '독단'은 남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판단하거나 결정함을 의미한다. 조장이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한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로 '독단'이 가장 알맞다.

오답노트

❶ '경시'는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김을 의미하므로 다른 사람과 상의 없이 혼자 결정해 행동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문맥에 알맞지 않다.

❸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의미하므로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행동을 설명하는 문맥을 나타내기에 알맞지 않다.

❹ '무례'는 태도나 행동에 예의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조장이 상의 없이 혼자 모든 것을 판단하여 결정한 행위를 나타내기에 알맞지 않다.

❺ '딜레마'는 두 가지 선택지 중 어느 쪽도 결정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태를 의미하므로 혼자서 결정을 내려 버린 상황을 나타내기에 알맞지 않다.

07 훈민정음이 세계 기록 유산 목록에 올랐다는 맥락이므로, 서류나 장부 따위에 올림을 의미하는 '등재'가 알맞다.

08 신라 시대 유물을 찾아내었다는 맥락이므로, 땅속에 묻힌 물건이나 가치 있는 대상을 찾아냄을 의미하는 '발굴'이 알맞다.

09 그동안의 연구 내용을 하나로 모아 결실을 맺었다는 맥락이므로, 여러 가지를 한데 모아 완전한 하나로 세움을 의미하는 '집대성'이 알맞다.

11 잘못된 태도를 단정하거나 남의 문화를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은 조심하고 단속해야 하므로 '경계(警戒)'가 알맞다.

오답노트

❷ '분별'은 세상 물정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함을 의미하므로, 단정 짓는 그릇된 태도를 조심하고 주의해야 함을 뜻하는 ㉢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지 않다.

❸ '수용'은 어떤 의견이나 제안, 물질 따위를 받아들임을 의미하므로, 특정 시기의 모습만 보고 잘못 단정하는 태도를 피해야 한다는 문맥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지 않다.

❹ '조화'는 어그러짐이 없이 서로 잘 어울림을 의미하므로 편협하거나 단정적인 태도를 조심해야 한다는 글의 흐름과 맞지 않다.

❺ '확립'은 생각이나 체계 따위를 확고히 세움을 의미하므로, 글에서 지적하는 피해야 할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다루는 문맥에 알맞지 않다.

12 '획일화(劃一化)'는 모든 것이 한 가지 틀에 찍어 낸 듯이 똑같아지거나 다름이 없게 됨을 뜻하는 말이다. 대중매체의 발달로 전 세계 사람들의 패션이 똑같아지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므로 괄호 안에는 '획일화'가 들어가야 한다.

오답노트

❶ '둔화'는 속도나 기운 따위가 느려지거나 무뎌짐을 의미한다.

❷ '보편적'은 모든 것에 두루 통하거나 미침을 의미한다.

❸ '고착화'는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굳어져 변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❺ '사회화'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규범이나 행동 양식을 익힘을 의미한다.

13 '문명'과 '야만'은 각각 발전된 상태와 미개한 상태를 나타내므로, 뜻이 서로 반대되는 반의 관계이고, 나머지는 모두 유의 관계이다.

오답노트

❶ '사상'과 '생각'은 어떤 대상에 대한 사고나 생각을 뜻하는 유의 관계이다.

❸ '유물'과 '유산'은 이전 세대가 남긴 물건이나 문화적 가치를 뜻하는 유의 관계이다.

❹ '성쇠'와 '흥망'은 일어남과 쇠퇴함, 흥함과 망함을 뜻하는 유의 관계이다.

❺ '발상지'와 '발원지'는 어떠한 사상이나 문화, 일이 처음 일어난 곳을 뜻하는 유의 관계이다.

14 '헌법'은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근본 법규로, 모든 법률의 기초가 되는 최고 법규이다.

오답노트

❶ '소송'은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 또는 그런 절차'를 의미하므로 모든 법률의 기초가 되는 최고 법규를 의미하는 문맥에 알맞지 않다.

❸ '분쟁'은 '집단 간에 일어나는 다툼이나 시비'를 의미하므로 국가의 근본이 되는 법률 체계를 가리키는 단어가 들어가야 할 문맥에 알맞지 않다.

❹ '공익'은 '사회 전체의 공동 이익'을 의미하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법규를 가리키는 단어가 들어가야 할 문맥에 알맞지 않다.

❺ '인권'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다운 권리'를 의미하므로 최고 법규라는 법률 개념을 의미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할 문맥에 알맞지 않다.

18 '배제'는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쳐 제외함을 뜻하는 말이다. 이를 '받아들여 존중하는'으로 바꾸면 뜻이 정반대가 되므로 알맞지 않다.

오답노트

❶ '폄하하는'은 '가치를 낮추어 깎아내리는'을 의미하므로 '깎아내리는'과 바꿔 쓰기에 알맞다.

❷ '무례한'은 '예의나 버릇이 없는'을 의미하므로 '예의가 없는'과 바꿔 쓰기에 알맞다.

❸ '통념'은 '사회에 널리 통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의미하므로 '일반적인 생각'과 바꿔 쓰기에 알맞다.

❺ '전파되는'은 '전하여 널리 퍼지는'을 의미하므로 '널리 퍼져 나가는'과 바꿔 쓰기에 알맞다.

19 '적발(摘發)'은 숨겨져 있거나 드러나지 않은 범죄나 부정행위 따위를 들추어내는 것을 뜻한다. 범인이 도망간 길이나 자취인 '도주 경로'는 적발의 대상이 아니므로, '파악하여' 또는 '포착하여'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오답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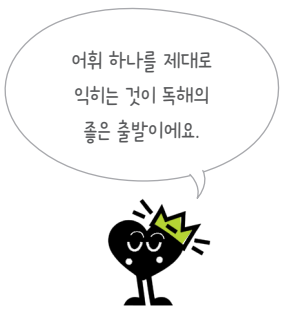
❶ '공권력'은 '국가나 공공 단체가 가지는 강제적인 권력'을 의미하므로 무너진 질서를 제지하기 위해 발동되는 문맥에 알맞다.

❷ '강제성'은 '위력이나 권력으로 억지로 시키는 성질'을 의미하므로 법을 반드시 따르게 하는 속성을 나타내는 문맥에 알맞다.

❸ '야기하였다'는 '어떤 일이나 현상을 불러일으켰다'를 의미하므로 부주의한 행동으로 벌어지게 된 사고를 나타내는 문맥에 알맞다.

❹ '행사한다'는 '권리나 자격 등을 실제로 쓰다'를 의미하므로 선거에서 투표권을 사용하는 문맥에 알맞다.

20 '자애(慈愛)'는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따사롭고 자비로운 사랑'을 뜻하며, '재해나 재난 따위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서 보호함.'은 '구호(救護)'에 대한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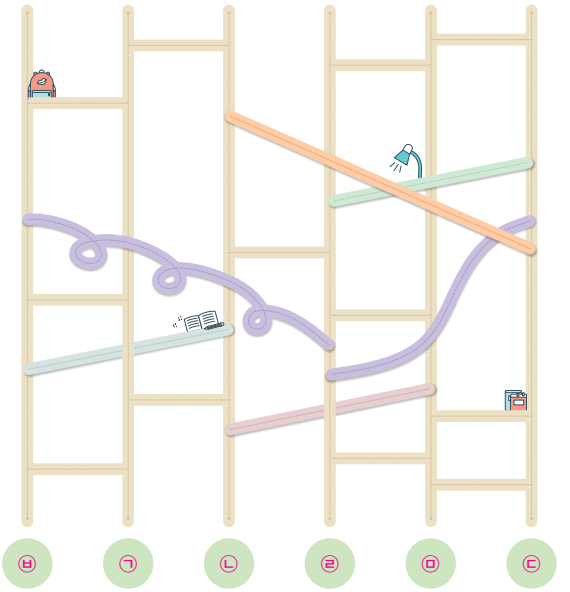
알면 든든 우리말 표현

확인 문제

본문 154~155쪽

01 ㉠ 일구이언 ㉡ 목불인견 ㉢ 절치부심 ㉣ 골육상쟁 ㉤ 안하무인 ㉥ 고장난명 **02** 눈, ㉡ **03** 눈, ㉣
04 귀, ㉠ **05** 귀, ㉢ **06** 콧방귀를 뀌며
07 입만 살았다 **08** 귀에 못이 박힌
09 입에 발린 소리

04 고장난명 골육상쟁 목불인견 안하무인 일구이언 절치부심



06 상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맥락이므로, 남의 말을 비웃거나 업신여기며 무시함을 뜻하는 '콧방귀를 뀌다'가 알맞다.

07 말과 달리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는다는 맥락이므로, 행동은 따르지 아니하고 말만 잘함을 뜻하는 '입만 살다'가 알맞다.

08 자주 들어 계속 생각난다는 맥락이므로, 같은 말을 들은 적이 매우 많음을 뜻하는 '귀에 못이 박히다'가 알맞다.

09



제시된 만화에는 옷을 팔기 위해 무조건 잘 어울린다고 칭찬하는 매장 직원의 말에 무리해서 옷을 산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마음에도 없이 겉치레로 하는 말'을 뜻할 때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은 '입에 발린 소리'이다.

독서 영역별 어휘 ②

18 생명과 몸의 작용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160쪽

1 (1) × (2) ○ (3) ×
2 (1) ㉡ (2) ㉢ (3) ㉠
3 (1) 보전 (2) 봉착 (3) 관여
4 ③

1 (1) '복제'는 원래의 것과 비슷한 듯 다르게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똑같게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3) '유전자'란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물려지는 특징을 만들어 내는 유전 정보의 기본 단위로, 본체는 디엔에이(DNA)이다.

더 알아두기 유전과 관련된 어휘

형질	생물이 지닌 고유한 특징(키, 꽃잎의 색깔 등)
대립 형질	서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한 쌍의 형질(둥근 ↔ 주름진 등)
우성	대립 형질이 함께 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열성	대립 형질이 함께 있을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형질

3 (1)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함을 뜻하는 '보전'이 전통문화를 잘 지켜 나간다는 문맥에 알맞고, '보수'는 낡거나 부서진 것을 손보아 고침을 의미하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2) 어떤 처지나 상태에 부닥침을 뜻하는 '봉착'이 협상이 어려움에 다다랐다는 문맥에 알맞고, '안착'은 마음의 흔들림 없이 어떤 곳에 착실하게 자리 잡음을 뜻하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3)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견함을 뜻하는 '관여'가 진로 문제에 더 이상 간섭하거나 참견하지 않는다는 문맥에 알맞고, '부여'는 권한이나 의미 등을 주어 갖게 함을 뜻하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4 '이식이 잘된 나무'는 '옮겨심기가 잘된 나무'라는 뜻이므로, 여기에서의 '이식'은 ㉡이 아닌 ㉠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2회

본문 163쪽

1 (1) 대항 (2) 배설 (3) 발병
2 (1) 존속 (2) 노폐물 (3) 숙주
3 (1) ㉡ (2) ㉠ (3) ㉢ (4) ㉣
4 (예시 문장) 인터넷상에 넘쳐나는 자극적이고 유해한 콘텐츠들 중에서 유익한 내용만 스스로 여과하여 시청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1 (1) 일제 강점자들에게 맞서 싸우다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맥락이므로, 마주하여 대들거나 맞서서 싸움을 의미하는 '대항'이 알맞다.
(2) 식이 섬유가 노폐물 배출을 돕는다는 맥락이므로, 생물체의 영양 섭취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작용을 의미하는 '배설'이 알맞다.
(3) 전염병이 발생하는 사실이 제때 보고되지 않았다는 맥락이므로, 병이 생기거나 발생함을 의미하는 '발병'이 알맞다.

더 알아두기 과학적으로 보는 '배설'과 '배출'

배설(排泄)	우리 몸이 영양소를 분해할 때 생기는 노폐물(암모니아, 요소 등)을 오줌의 형태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말함.
배설계(排泄系)	배설 작용을 담당하는 콩팥 등의 기관들을 묶어 부르는 말임.
배출(排出)	음식을 소화하고 남은 찌꺼기를 내보내는 것은 배출 작용에 해당함.

2 (1)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계속 이어짐을 뜻하는 '존속'이 민족의 쇠퇴냐 계속 이어짐이냐의 갈림길을 나타내는 문맥에 알맞고, '비속'은 수준이 낮고 속됨을 뜻하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2) 생물체에서 필요 없게 되어 배출되는 물질을 뜻하는 '노폐물'이 운동 후 근육에 쌓여 피로를 유발한다는 문맥에 알맞고,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인 것을 뜻하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3) 기생하는 생물에게 영양분과 서식지를 제공하는 대상을 뜻하는 '숙주'가 기생 또는 공생하는 생물에게 터전을 제공하는 동식물을 가리키는 문맥에 알맞고, '숙고'는 곰곰이 생각함을 뜻하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3 (1) 파수꾼이 조는 사이에 적군이 몰래 들어온다는 맥락이므로, 어떤 곳에 몰래 숨어 들어감을 뜻하는 ㉡의 의미로 사용되어야 한다.
(2) 운동화 속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양말이 모두 젖었다는 맥락이므로, 액체 따위가 스며들어 뱀을 뜻하는 ㉠의 의미로 사용되어야 한다.
(3) 세균이 몸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손발을 씻는다는 맥락이므로, 세균이나 병균 따위가 몸속에 들어옴을 뜻하는 ㉢의 의미로 사용되어야 한다.
(4) 물질주의 사상이 청소년 사회에 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맥락이므로, 어떤 사상이나 현상, 정책 따위가 깊이 스며들어 퍼짐을 뜻하는 ㉣의 의미로 사용되어야 한다.

4 '여과'는 '① 거름종이나 여과기를 써서 액체 속에 들어 있는 물질을 걸러 내는 일, ② 주로 부정적인 요소를 걸러 내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더 알아두기 '여과'의 비유적 활용

적용 대상	활용 예시
정보	인터넷에는 가짜 뉴스가 많으므로 올바른 정보를 여과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문화	외국의 문화를 우리 실정에 맞게 여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감정·생각	화가 난다고 해서 여과되지 않은 표현을 거침없이 내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9 물질의 특징과 반응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166쪽

1 (1) 균일 (2) 관찰
2 (1) 분리 (2) 확산 (3) 반응
3 ②
4 예시 문장 실험실에서 두 물질이 더 잘 반응하도록 화학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촉매를 추가했다.

2 (1) 서로 떼어 놓음을 뜻하는 '분리'가 녹는 물질과 녹지 않는 물질을 구분하려는 문맥에 알맞고, '분화'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하고 이질적인 것으로 변함을 뜻하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2) 기체나 액체 분자가 퍼져 나감을 뜻하는 '확산'이 잉크가 수조 전체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는 문맥에 알맞고, '확대'는 모양이나 규모를 크게 함을 뜻하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3) 어떤 자극이나 작용에 대해 일어나는 변화나 현상을 뜻하는 '반응'이 두 물질이 섞여 거품이 생기는 화학적 변화를 보인다는 문맥에 알맞고, '주시'는 눈여겨봄을 뜻하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더 알아두기 입자의 운동으로 보는 '확산'과 '증발'

	확산(擴散)	증발(蒸發)
과학적 의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주변으로 멀리 퍼져 나가는 현상	액체 표면의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기체로 변해 날아가는 현상
과학 예시	•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퍼짐. • 향수 냄새가 방 안 전체로 퍼짐.	• 젖은 빨래가 마름. • 풀잎의 이슬이 사라짐.
비유적 활용	소문, 문화, 감염병 등이 넓게 퍼질 때 예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자취나 현상이 덧없이 사라질 때 예 사건의 증거가 순식간에 증발했다.

3 이 글은 소금이 물에 최대로 녹아 더 이상 녹지 않는 '포화' 상태와, 여기에 물을 더 부어 소금물의 농도를 낮추는 '희석'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노트

❶, ❸, ❺ '분리'는 '서로 떼어 놓음'을 뜻하므로, 더 이상 녹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에 알맞지 않고 물을 더 부어 농도를 묽게 만든다는 ㉡에도 알맞지 않다. '확산'은 '퍼져 나감'을 뜻하므로 물을 더 부어 농도를 진하지 않게 줄인다는 ㉡의 문맥에 알맞지 않다.
❹ '희석'은 '농도를 묽게 함'을 뜻하므로 더 이상 녹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에 알맞지 않으며, '포화'는 ㉡의 자리에 들어가기에 알맞지 않다.

4 '촉매'는 '① 화학 반응에서, 그 자신은 변하지 않으며 다른 물질의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하거나 늦추는 작용을 하는 물질, ② 어떤 일을 유도하거나 변화시키는 일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2회

본문 169쪽

1 (1) ○ (2) × (3) ×
2 (1) 활성화 (2) 신소재 (3) 실용화
3 (1) ㉢ 분해 (2) ㉡ 충돌 (3) ㉠ 결합
4 ⑤

1 (2) '화합물'은 물리적인 방식으로 각각의 성분을 분리할 수 없다.
(3) '연금술'은 금이나 은을 납이나 구리로 바꾸려는 기술이 아니라 납이나 구리를 금이나 은으로 바꾸려는 기술로,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연구가 계속되었으나 결국 모두 실패하였다.

더 알아두기 화합물과 혼합물의 비교

	화합물	혼합물
뜻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으로 결합해 만들어진 물질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성질을 그대로 지닌 채 섞여 있는 물질
나누는 방법	전기 분해, 가열 분해 등	거름, 증류, 자석 이용 등
예	물	소금물

2 (1) 효소의 기능이나 작용이 활발해지는 것을 지연시킨다는 맥락이므로, 원자나 분자가 높은 에너지 상태로 되어 물질의 반응성이 높아짐을 뜻하는 '활성화'가 알맞다.
(2) 가볍고 단단한 새로운 재료를 로봇 제작에 활용한다는 맥락이므로, 종전의 것보다 우수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재료를 뜻하는 '신소재'가 알맞다.
(3) 친환경 플라스틱을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한다는 맥락이므로, 실제로 쓰거나 실상에 맞게 함을 뜻하는 '실용화'가 알맞다.

3 (1) 여러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을 그 낱낱으로 나눔을 뜻하는 '분해'가 미생물이 유해한 오염 물질을 쪼개어 나눈다는 ㉢의 문맥에 알맞다.
(2) 서로 맞부딪침을 뜻하는 '충돌'이 두 물질이 부딪혀 발생하는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의 문맥에 알맞다.
(3) 둘 이상의 요소가 서로 결합하여 하나로 됨을 뜻하는 '결합'이 산소와 수소가 서로 합쳐서 물을 만든다는 ㉠의 문맥에 알맞다.

4 연예인이 다양한 옷을 입어서 패션을 선도한다는 것은 남보다 앞장서서 패션을 이끈다는 의미이므로, ㉡의 '선도(先導)'가 알맞다.

오답 노트

❶ 선발대가 뒤따라 오는 사람들보다 먼저 베이스캠프에 도착한 것이므로, 남보다 먼저 도착함을 뜻하는 '선도(先到)'의 의미에 맞게 쓰였다.
❷ 방송 매체들이 앞장서서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선도(先導)'의 의미에 맞게 쓰였다.
❸ 그가 참가자들을 이끌고 교육장으로 안내한다는 의미이므로, '선도(先導)'의 의미에 맞게 쓰였다.
❹ 청소년을 처벌하기보다 순화하는 것이 올바르고 좋은 길로 이끄는 것이라는 의미이므로, '선도(善導)'의 의미에 맞게 쓰였다.

20 그림과 음악의 표현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172쪽

1 (1) ㉡ 화폭 (2) ㉢ 기교 (3) ㉠ 피사체
2 (1) 발현 (2) 포착 (3) 고조
3 (1) 구도 (2) 영감 (3) 역동적
4 ③

1 (1) 그림을 그려 놓은 천이나 종이의 조각을 뜻하는 '화폭'이 해돋이 풍경을 담는다는 ㉡의 문맥에 알맞다.
(2) 기술이나 솜씨가 아주 교묘함을 뜻하는 '기교'가 바이올린 연주 기술이 뛰어나다는 ㉢의 문맥에 알맞다.
(3) 사진이나 영화를 찍을 때 대상이 되는 물체를 뜻하는 '피사체'가 영화 속에 찍히는 대상이 움직인다는 ㉠의 문맥에 알맞다.

2 (1) 인간에 대한 사랑이 인권 운동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맥락이므로, 속에 숨어 있거나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밖으로 나타남을 뜻하는 '발현'이 알맞다.
(2) 작품 속 갈등 구조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맥락이므로,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똑똑히 알아차리거나 잡아냄을 뜻하는 '포착'이 알맞다.
(3) 공연장의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진다는 맥락이므로, 기운이나 분위기 따위가 올라감을 뜻하는 '고조'가 알맞다.

3 (1) 미술 작품에서 화면의 구성 요소들이 배치된 모양을 뜻하는 '구도'가 스냅 사진처럼 파격적인 배치를 보여 준다는 문맥에 알맞고, '형상'은 사물의 형체나 모양을 뜻하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2)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을 뜻하는 '영감'이 자연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문맥에 알맞고, '예감'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느끼는 감정을 뜻하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3)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는 것을 뜻하는 '역동적'이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화려한 군무를 나타내는 문맥에 알맞고, '정적'은 조용하고 움직임이 없음을 뜻하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4 제시된 글에서는 배우의 열연에 관객들이 작품에 빠져드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깊이 파고들거나 빠짐'을 의미하는 '몰입'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알맞다.

오답노트

❶ '영감'은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을 뜻하는데 현재 글에서는 관객들이 창조적인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다.
❷ '고조'는 '사상이나 감정, 세력 따위가 한창 무르익거나 높아짐'을 뜻하는데, 배우의 완벽한 연기로 관객들의 감정이 고조될 수는 있지만 관객의 감정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작품에 대한 관객의 반응이 빈칸에 들어가야 하므로 문맥상 알맞지 않다.
❹ '발현'은 '속에 있거나 숨은 것이 밖으로 나타나거나 그렇게 나타나게 함'을 뜻하는데, 문맥상 빈칸에 들어가기에는 알맞지 않다.
❺ '포착'은 '꼭 붙잡음'을 뜻하는 것으로, 문맥상 빈칸에 들어가기에는 알맞지 않다.

더 알아두기 소설 「레 미제라블」

개요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로, 제목인 '레 미제라블'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임.
의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구원, 그리고 사회 구조적 모순에 대한 비판을 담음.

2회

본문 175쪽

1 (1) 기보 (2) 독주 (3) 악장
2 (1) 웅장한 (2) 청아하게 (3) 변주
3 ②
4 (예시 문장) 흘러나오는 잔잔한 바이올린 선율을 들으니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듯했다.

2 (1) '규모가 거대하고 성대한'을 뜻하는 '웅장한'이 백두산의 거대한 모습을 나타내는 문맥에 알맞고, '왜소한'은 '규모나 체구가 작은'을 뜻하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2) '티가 없이 맑고 아름답게'를 뜻하는 '청아하게'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풍경 소리라는 문맥에 알맞고, '애처롭게'는 '가엾고 불쌍하게'를 뜻하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3) 어떤 주제를 바탕으로 선율이나 리듬, 화성 등을 여러 가지로 변형하여 연주함을 뜻하는 '변주'가 연주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곡을 바꾸어 연주한다는 문맥에 알맞고, '독주'는 혼자서 연주함을 뜻하므로 문맥에 알맞지 않다.

더 알아두기 음악을 연주하고 표현하는 어휘

연주 형태	독주(獨奏)	한 사람이 혼자 악기를 연주함.
	합주(合奏)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악기를 연주함.
곡의 변화	변주(變奏)	원곡의 가락이나 리듬을 다채롭게 바꾸어 연주함.
	편곡(編曲)	원래 곡을 다른 악기나 연주 형태로 바꾸어 구성함.

3 격한 안무를 추며 노래를 부르면 숨이 차서 음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소화하여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문맥상 빈칸에는 '음 하나하나의 높고 낮은 정도'를 의미하는 '음정'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알맞다.

오답노트

❶ '발음'은 '음성을 냄. 또는 그 음성'으로 문맥상 알맞지 않다.
❸ '발성'은 '목소리를 냄. 또는 그 목소리'로 문맥상 알맞지 않다.
❹ '하모니'는 '일정한 법칙에 따른 화음의 연결'로 문맥상 알맞지 않다.
❺ '멜로디'는 '선율'과 유사한 단어로 '소리의 높낮이가 길이나 리듬과 어울려 나타나는 음의 흐름'이라는 뜻이므로 문맥상 알맞지 않다.

4 '선율'은 소리의 높낮이가 길이나 리듬과 어울려 나타나는 음의 흐름을 의미한다.

종합 문제 18~20

본문 176~179쪽

01 ③	02 ④	03 ⑤	04 ⑤
05 ㉠	06 ㉢	07 ㉡	08 ②
09 ②	10 배설	11 ⑤	12 ①
수능형 ③	13 ⑤	14 ③	15 신소재
16 배양	17 실용화	18 ⑤	19 발성, 화성
20 ①			

01 '발병'은 병이 생겨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병원체가 체내에 자리를 잡아 몸의 기능이 흐트러지는 상황을 나타내므로 '병이 생겨나면'과 바꿔 쓸 수 있다.

02 '이완'은 조였던 정신이나 굳어진 근육이 원래대로 풀어지는 것을 뜻한다. '마음을 조이고 정신을 바짝 차림'은 '긴장'의 뜻이다.

03 이 글의 '여과'는 액체 속에 들어 있는 물질을 걸러 내는 것을 뜻한다. 물속 불순물을 걸러 내는 ⑤가 같은 의미로 쓰였고, 나머지는 부정적 요소를 걸러 낸다는 비유적 의미로 쓰였다.

04 '합성'은 둘 이상을 합쳐 하나를 이룸을, '분리'는 서로 나뉘어 떨어짐을 뜻하는 반의 관계이며, 나머지는 모두 유의 관계이다.

오답노트

❶ '확산'과 '퍼짐'은 흩어져 넓게 퍼짐을 나타내는 유의 관계이다.

❷ '웅장'과 '거대'는 크기가 매우 큼을 나타내는 유의 관계이다.

❸ '균일'과 '고름'은 한결같이 치우침이 없고 일정함을 나타내는 유의 관계이다.

❹ '복제'와 '모조'는 원본을 흉내 내어 똑같이 만듦을 나타내는 유의 관계이다.

08 '포착'은 기회나 요점, 순간 따위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을 뜻한다. 낡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②의 쓰임은 알맞지 않다.

오답노트

❶ 형사가 사건의 결정적 단서를 놓치지 않고 잡아냈다는 의미이므로, '포착'의 의미에 맞게 쓰였다.

❸ 상대의 말에서 문제의 요점이나 본질을 정확히 알아차렸다는 의미이므로, '포착'의 의미에 맞게 쓰였다.

❹ 사진가가 새가 날아오르는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아냈다는 의미이므로, '포착'의 의미에 맞게 쓰였다.

❺ 기자가 시장의 변화나 징후를 놓치지 않고 알아차렸다는 의미이므로, '포착'의 의미에 맞게 쓰였다.

09 '봉착'은 어떤 처지나 상태에 부닥치는 것을 뜻한다. 폭설이라는 뜻밖의 난관에 부닥친 상황을 나타내기에 가장 알맞다.

오답노트

❶ '존속'은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계속 이어짐을 뜻하므로 난관에 다다랐다는 문맥에 알맞지 않다.

❸ '상주'는 한곳에 머물러 늘 있음을 뜻하므로 어려운 처지에 부닥쳤다는 문맥에 알맞지 않다.

❹ '관찰'은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 깊게 살펴봄을 뜻하므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다는 문맥에 알맞지 않다.

❺ '관여'는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견함을 뜻하므로 어려운 처지에 맞닥뜨렸다는 문맥에 알맞지 않다.

11 ⑤는 두 물질이 섞여 성질에 변화가 일어나는 화학적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보기〉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자극에 대응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남'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오답노트

❶ 질문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쓰였다.

❷ 새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는 의미로 쓰였다.

❸ 약을 먹은 뒤 몸에 부작용이나 생체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의미로 쓰였다.

❹ 무대를 본 관객들이 뜨거운 호응과 감정을 표현했다는 의미로 쓰였다.

12 이 글에서 '보전'은 맥락상 개발물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자원을 온전하게 지켜 유지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노트

❷는 소실이나 적자를 메운다고 할 때의 '보전(補塡)', ❸은 '보관(保管)', ❹는 '지속(持續)' 또는 '유지(維持)', ❺는 '분해(分解)'의 의미이다.

수능형 생산 속도에 비해 분해 기술의 발전이 뒤처지는 기술적 불균형으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이 낭비 또는 고갈되는 부정적인 상황이 와야 하므로, 자원을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한다는 뜻의 '보전'은 문맥상 알맞지 않다.

오답노트

❶ ⓐ '분해'는 복잡한 물질을 간단한 성분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므로 문맥상 쓰임이 알맞다.

❷ ⓑ '생산'은 새로운 물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문맥상 쓰임이 알맞다.

❹ ⓓ '방지'는 환경 오염과 같은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음을 뜻하므로 문맥상 쓰임이 알맞다.

❺ ⓔ '도모'는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긍정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꾀하거나 노력함을 뜻하므로 문맥상 쓰임이 알맞다.

13 이 글에서 '분해(分解)'는 한 종류의 화합물을 두 가지 이상의 간단한 화합물로 나누는 의미로 쓰였다. 반면 ⑤의 '분해'는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진 기계나 물건을 낱낱으로 부수어 나누는 의미로 쓰여 문맥상 의미가 다르다.

오답노트

❶ 이 문장에서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의 기본 성분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

❷ 이 문장에서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화학 결합하여 이루어진 물질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

❸ 이 문장에서 '활성화'는 물질의 반응성이 높아지거나 기능이 활발해짐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

❹ 이 문장에서 '변이'는 같은 종류의 개체 사이에서 형질이 달라짐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

14 '촉매'는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물질의 반응을 빠르거나 느리게 하는 물질이며, 어떤 일을 유도하거나 변화시키는 계기를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한다.

오답노트

❶ '분리'는 서로 떼어 놓음을 뜻하므로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나 화학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을 가리키는 문맥에 알맞지 않다.

❷ '포화'는 어떤 한도까지 찬 상태를 뜻하므로 활기를 불어넣거나 화학 반응을 돕는 매개체라는 문맥에 알맞지 않다.

❹ '합성'은 둘 이상을 합쳐 하나를 이룸을 뜻하므로 조직에 영향을 미치거나 화학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문맥에 알맞지 않다.

❺ '확산'은 널리 퍼져 나감을 뜻하므로 어떤 일을 유도하는 계기나 반응을 촉진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문맥에 알맞지 않다.

18 '피사체(被寫體)'는 사진을 찍는 대상이 되는 물체를 뜻한다. 덩굴 식물이 다른 나무에 붙어서 자라는 상황을 나타낼 때는 '숙주(宿主)'가 들어가야 문맥상 알맞다.

오답노트

❶ 예술가가 문득 떠오른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을 바탕으로 작품을 완성했다는 의미이므로, '영감'의 쓰임으로 알맞다.

❷ 잠재되어 있던 예술적 재능이 밖으로 드러났다는 의미이므로, '발현'의 쓰임으로 알맞다.

❸ 피아니스트가 교묘하고 뛰어난 연주 기술을 선보였다는 의미이므로, '기교'의 쓰임으로 알맞다.

❹ 소음 속에서도 책을 읽는 데 마음을 깊이 쏟아 빠져 있었다는 의미이므로, '몰입'의 쓰임으로 알맞다.

19 소리를 내는 방법이나 소리 자체를 뜻하는 '발성'과, 두 개 이상의 음이 함께 울릴 때의 조화를 뜻하는 '화성'이 문맥상 어울린다.

20 ①은 관객의 긴장감이 최고로 높아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보기〉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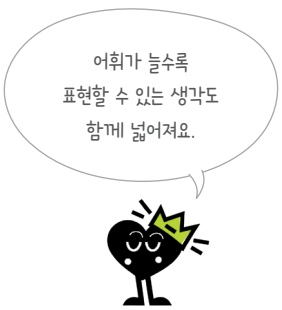
오답노트

❷ 웅장하고 높은 가락의 선율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❸ 귀를 찌르는 듯한 높은 음조의 소리라는 의미로 쓰였다.

❹ 낮은 음조(저조)와 대비되는 높은 음조라는 의미로 쓰였다.

❺ 점점 높아지는 가락으로 노래했다는 의미로 쓰였다.



알면 든든 우리말 표현

확인 문제

본문 182~183쪽

01 회자정리 **02** 일장춘몽 **03** 거자필반 **04** 흥진비래
05 등고자비 **06** 고진감래 **07** 새옹지마
08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09** 구슬
10 귀걸이 **11** 실 **12** 가는 날이 장날

01~06

반	위	편	삼	고	말	선
면	회	거	흥	진	비	래
등	고	자	비	감	만	락
교	약	필	정	래	반	이
사	가	반	각	리	골	한
백	년	일	장	춘	몽	통

07 '새옹지마(塞翁之馬)'는 '변방 노인의 말'이라는 뜻으로, 인생의 길흉화복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화가 되기도 하므로, 삶의 변화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아야 함을 비유할 때 사용한다.

08 현수는 평소에 시험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게임만 하다가 결국 시험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나타내는 속담으로는 '모든 일은 원인에 따라 반드시 그에 걸맞은 결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뜻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가 알맞다.

12



제시된 만화처럼 모처럼 캠핑을 떠나려는데 하필 비가 쏟아지는 상황에는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속담이 알맞다. 이는 일을 보러 가니 공교롭게 장이 서는 날이라는 뜻으로, 예상치 못한 일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때 사용한다.

memo



memo



memo

